

2019 노동인권지킴이 사업 활동보고서

---

대전광역시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 생활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2019.10

---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www.djiw.or.kr](http://www.djiw.or.kr)



## 목 차

I . 사업의 목적과 방법	
1. 사업목적 .....	6
2. 사업대상 .....	7
3. 사업시기 및 방법 .....	7
II . 노동환경. 생활욕구 조사 결과 분석 .....	8
III . 응답자 지역별 간담회 결과 .....	40
IV . 정책대안 .....	43
V . 활동소감 .....	52
VI . 참고자료 .....	59



## 노동인권지킴이 사업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 센터에서는 2018년 대덕구에 이어, 2019년 유성구에서 노동인권지킴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종별 실태조사를 넘어 지역별 노동과 생활환경 조사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알아보고, 개선방향을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직종별 실태조사 만큼이나 지역별 실태조사도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조직,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의미가 큼니다.

이번 유성구 조사는 2018년 대덕구 조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시간 노동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덕구 조사는 소규모사업장의 정규직 분들이 많았던 반면, 이번 유성구는 단시간 노동자, 고연령 노동자들이 많이 조사되었습니다.

유성구는 대전시 기초 자치구중 대덕구 다음으로 노동밀집 지역입니다. 소규모 사업장들도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연구단지 주변과 용산동, 관평동 주변에 밀집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유성구에서도 소규모,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들이 준비되기를 기대 해 봅니다. 기초지방정부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나서 줘야 합니다.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유성구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또,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고민되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한 자조모임들이 지원되고, 더 나아가 네트워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미조직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유성구에서도 첫 걸음이 떼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장 홍춘기

## I. 사업의 목적과 방법

### 1. 사업목적

■ 대전광역시 미조직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함.

대전광역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규모에 따른 분류표에서 보듯이, 대전광역시에는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72%(100인미만)를 차지하고 있음. 노동조합 조직율은 대전 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총 41개 3.36% (통계청 2017년)으로 전국평균 약 8%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임. 미조직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있음.

전체산업	대전광역시 Daejeon		유성구 Yuseong-gu	
	사업체수 Estab.	종사자수 Workers	사업체수 Estab.	종사자수 Workers
	113,228	597,011	22,002	153,932
1-4명	92,630	164,954	16,833	32,350
5-9명	12,152	76,539	2,946	18,668
10-19명	4,594	60,126	1,206	15,806
20-49명	2,390	72,343	635	18,785
50-99명	891	60,681	219	15,039
100-299명	440	67,963	119	19,135
300-499명	63	24,164	21	8,272
500-999명	44	30,515	17	11,865
1,000명 이상	24	39,726	6	14,012

표 1 대전지역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현황(2016년)

■ 미조직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미조직노동자들의 경우 이해대변을 위한 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된 미조직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근거로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기 위함. 특히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미조직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증진 방안이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개선방향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노동자들을 찾아내고 직종별 네트워크 구성을 하기 위함.

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한 이해대변 조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단위 현장별 노동조합 조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이해대변 조직의 다양한 사례들이 고민되어야 함. 2018년 대덕구 실태조사를 통한 네트워크 조직 사례에서 보듯이, 자치구별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고민되어야 함.

## 2. 사업대상

유성구내 직장에 다니는 모든 노동자 500명

(공무원, 공사 직원, 대기업 정규직 제외)

아르바이트도 가능(전체 조사대상중 10%미만), 성별, 나이 상관없음

## 3. 사업방법

■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조사원 노동인권 교육

2019년 5-6월

■ 실태조사기간 ; 조사원들이 개별 실태조사 진행

2019년 6월

■ 코딩 및 분석 ; 조사지 분석 작업

2019년 6월 - 7월

■ 직종별 네트워크 회의 및 노동인권파티 ; 조사원들 참여

2019년 8월 - 10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생활 아카데미

2019년 10월 - 12월

## Ⅱ. 노동환경. 생활욕구 조사 결과 분석

### □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 전체 응답자 484명중 여성 응답자 비율이 69%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 연령별 특징에서 2-30대 비율이 23%이고 40대, 50대, 60대 이상이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음.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응답자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응답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28%)에 비해 비정규직이 높게 조사되었고,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중 단시간노동자들을 조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고연령층 조사비율이 높다보니, 단시간 노동 비율도 높게 나왔음.
- 응답자들의 근무직종에 대해서는 서비스 직군이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사무실 등 사무직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경비 및 시설관리, 요식업 순으로 종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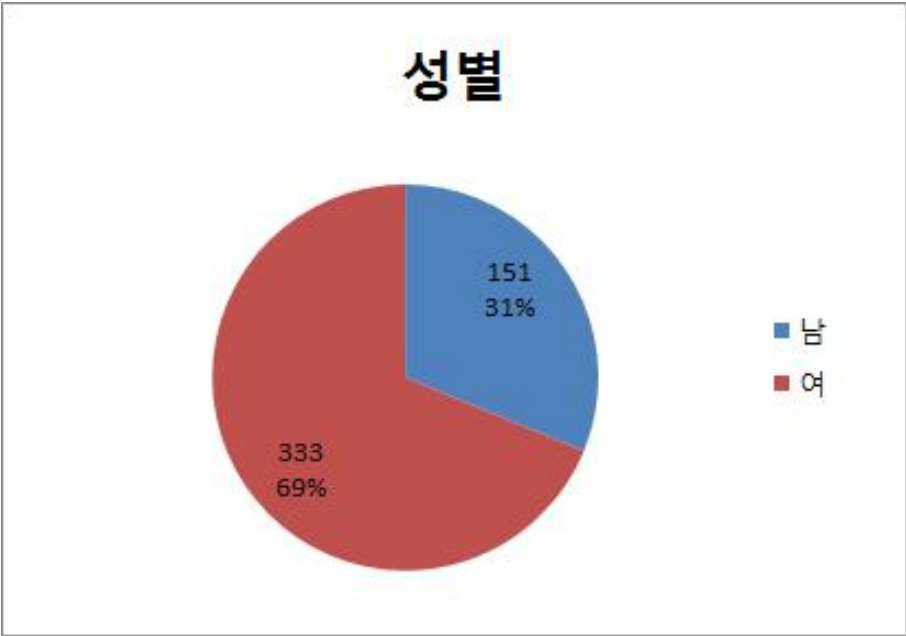


그림 2 응답자 성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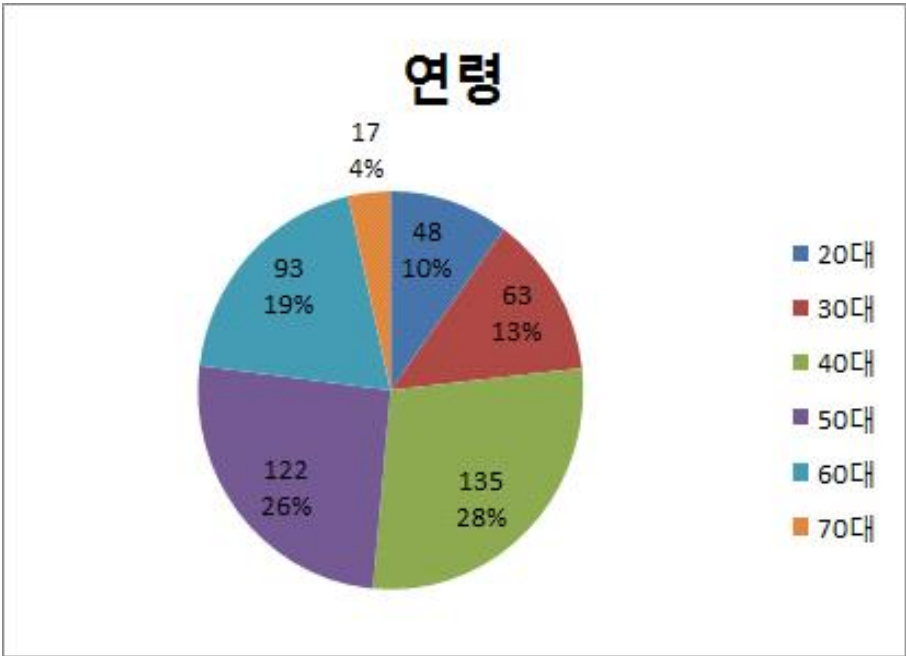


그림 3 응답자 연령별 분포(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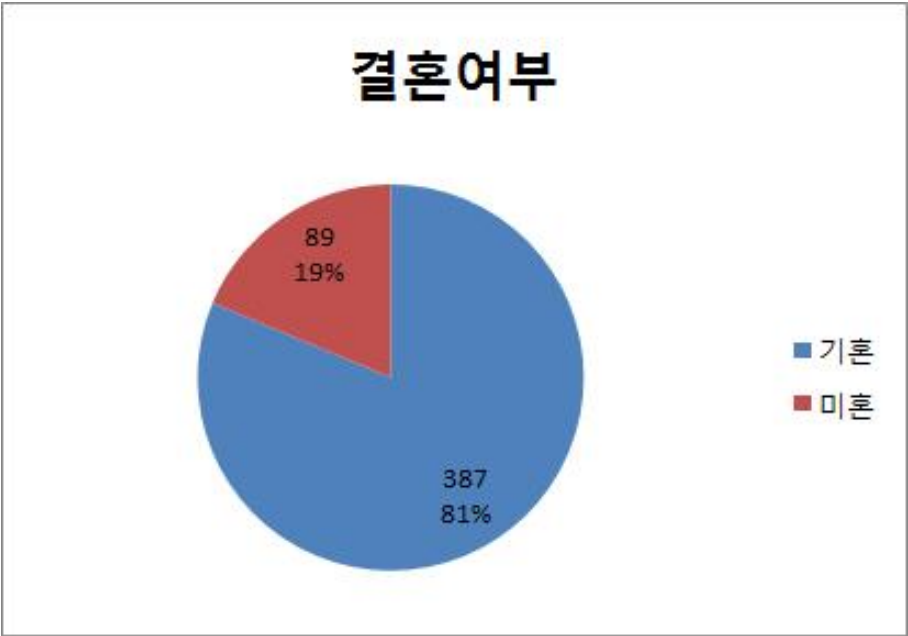


그림 4 응답자 결혼여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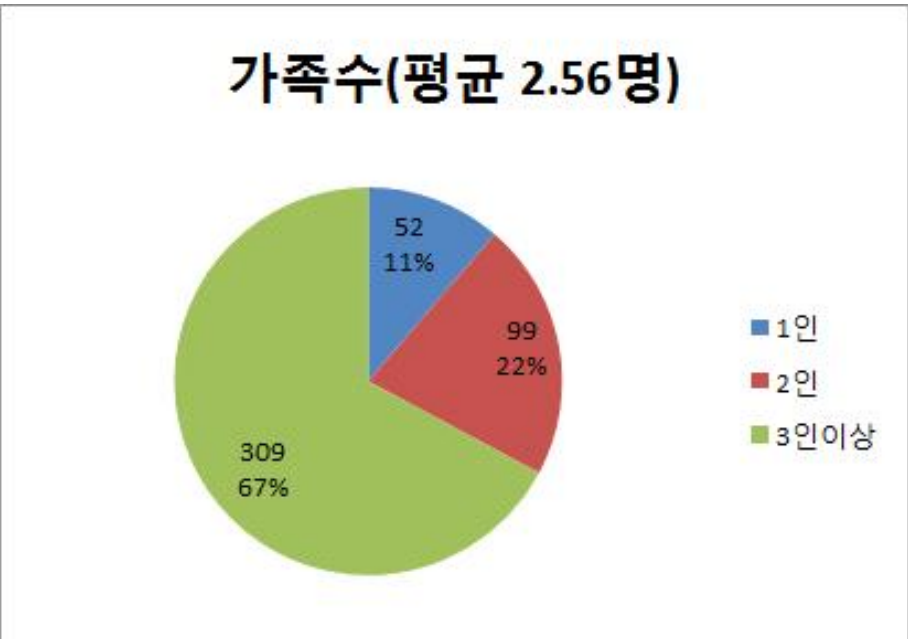


그림 5 응답자 가구당 가족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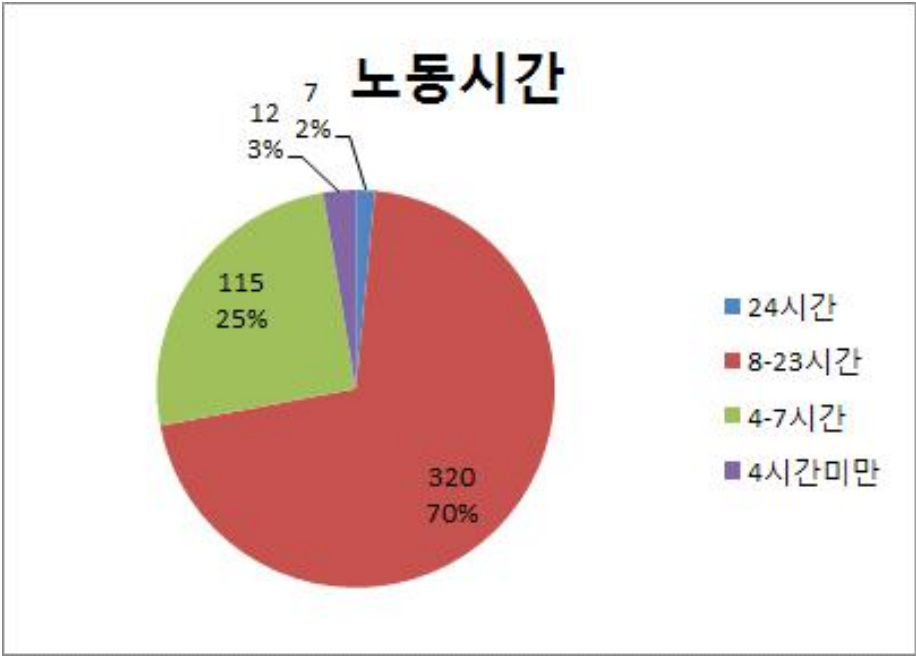


그림 6 노동시간별 분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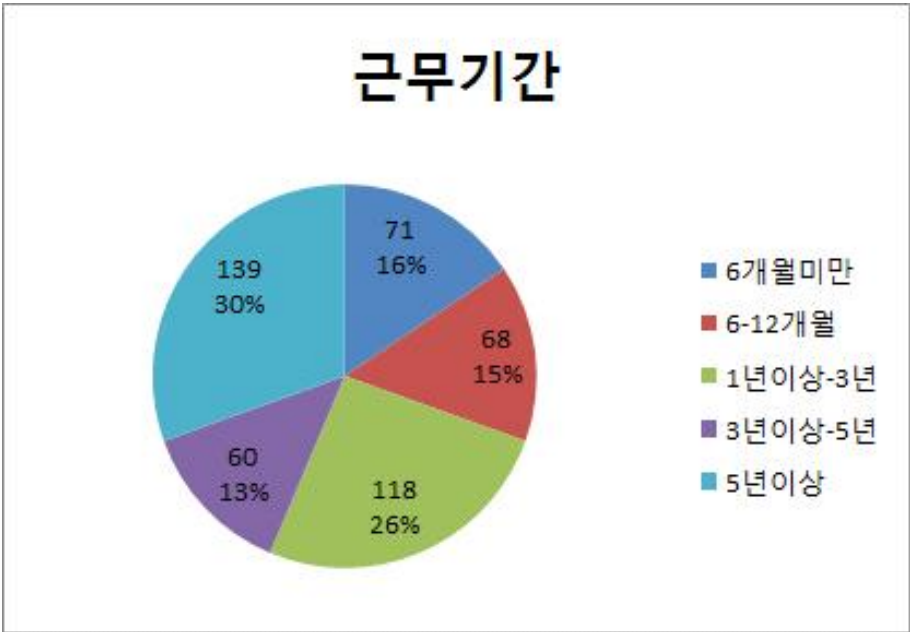


그림 7 응답자 근무기간(명,%)



그림 8 정규직 근무기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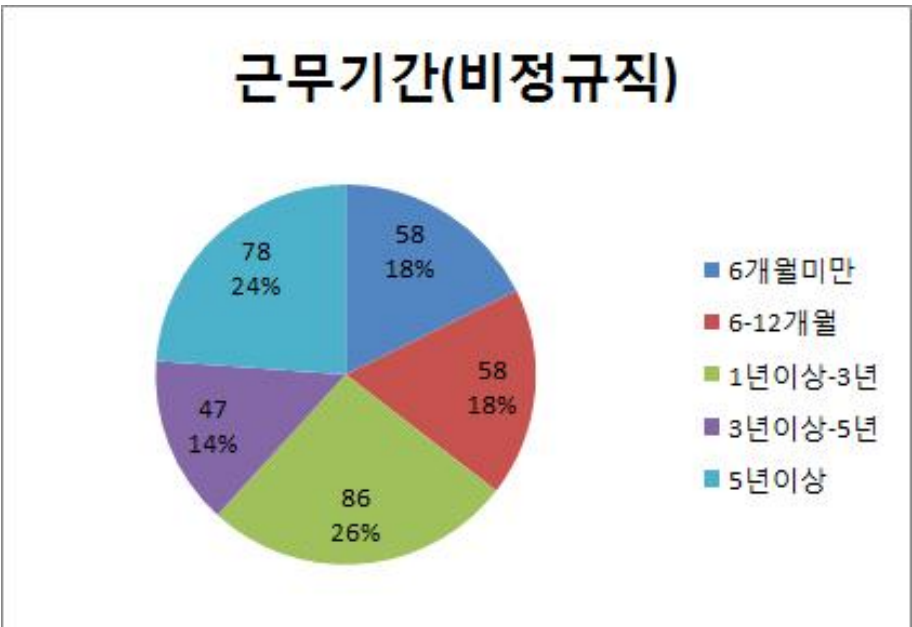


그림 9 비정규직 근무기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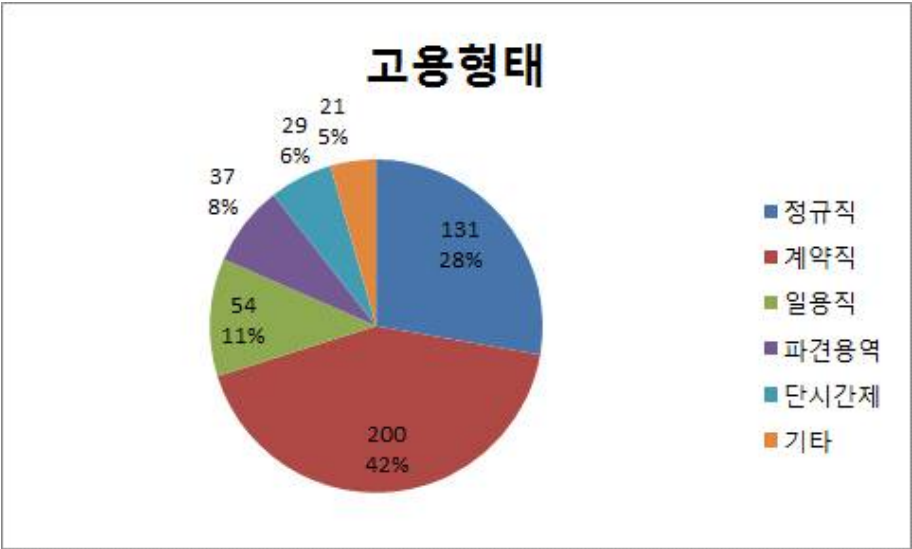


그림 10 응답자 고용형태 분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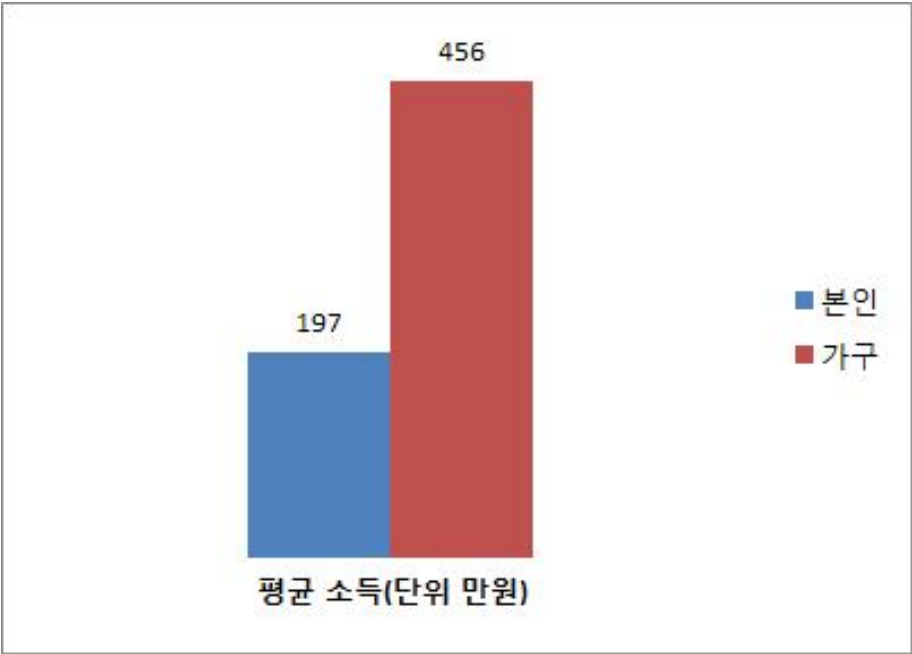


그림 11 응답자 평균소득과 가구별 평균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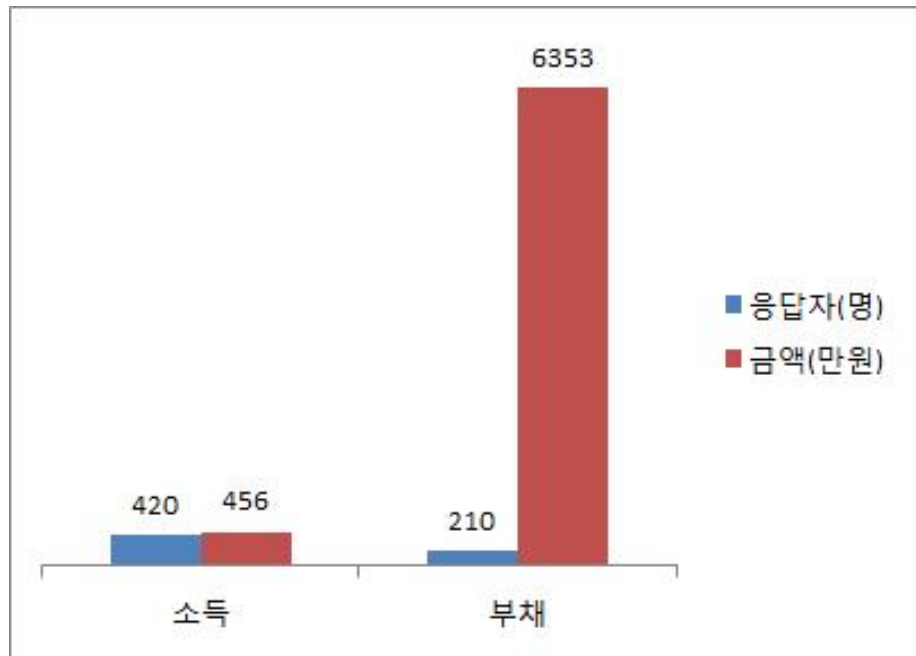


그림 12 응답자별 가계소득과 부채 규모

직군	명	기타
서비스	119	영업직, 콜센터, 판매직 등
사무실	96	개인사무실, 사무직 등
시설 관리	77	경비, 미화원, 청소, 시설관리
요식업	64	식당, 프렌차이즈점 등
생산직	31	생산직
병원	28	간호사, 약국등
돌봄	22	아이돌봄영역
기타	41	

표 2 응답자 근무직종

## □ 근로환경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48%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각종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4대보험에 미가입된 노동자들이 정규직은 20여명, 비정규직은 100여명으로 조사되어, 영세사업장 노동환경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음.
- 각종수당과 관련하여서도 정규직은 명절수당 정도를 50% 정도 받고 있었고, 식비의 경우 50% 못 미치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비정규직은 20% 정도만 식비 등 수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요구되는 수당과 관련해서는 개인질병건강관리지원 및 여타의 복지수당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왔음.
- 직장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정규직은 임금을 제외한 부분에서 대체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비정규직은 대부분 만족도가 높지 않게 나왔음.
- 직장생활 중 부당한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경험 없음이 많았지만, 부당한 경험을 가진 노동자들은 2-3개의 부당한 사례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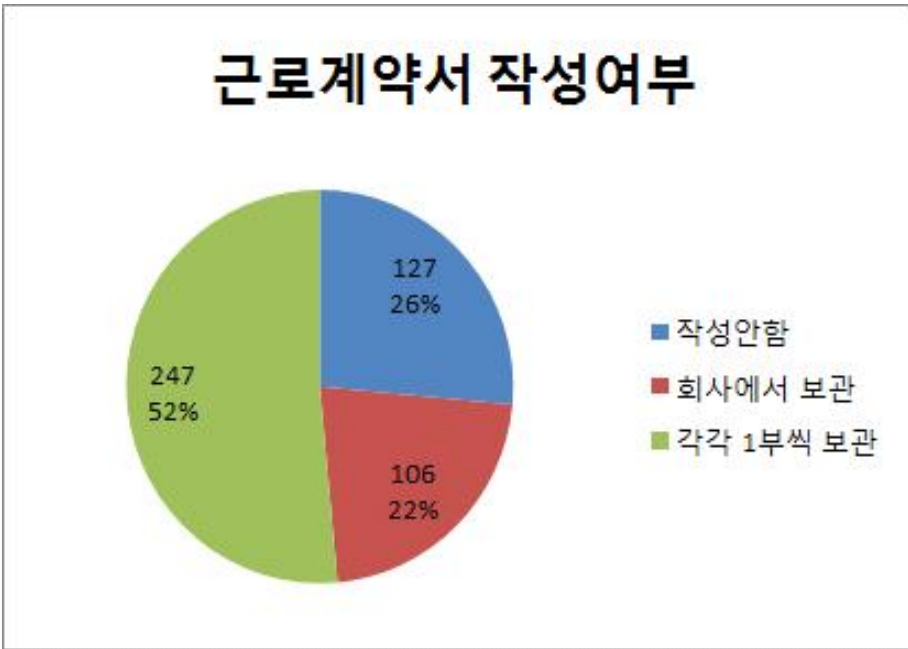


그림 1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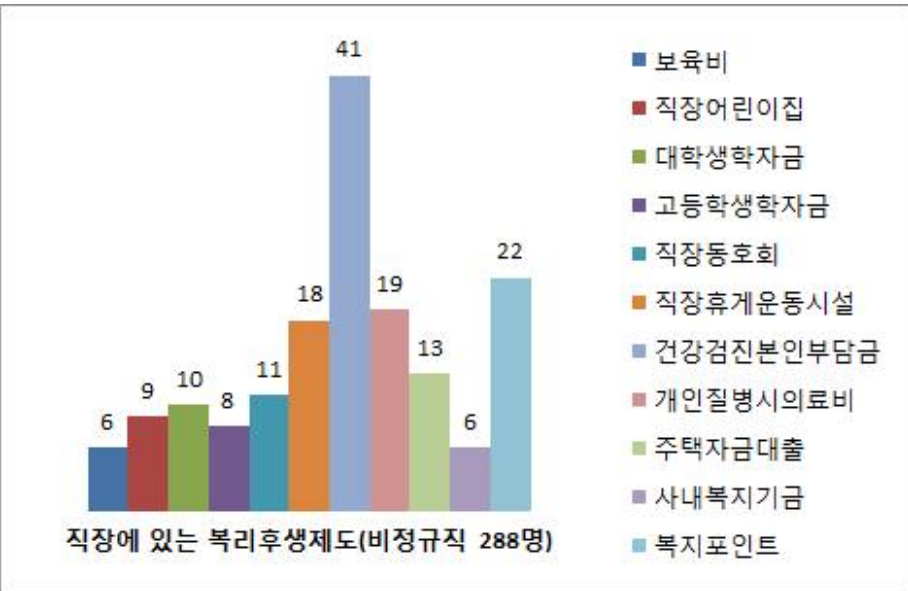


그림 14 직장에 있는 복리후생제도(비정규직 288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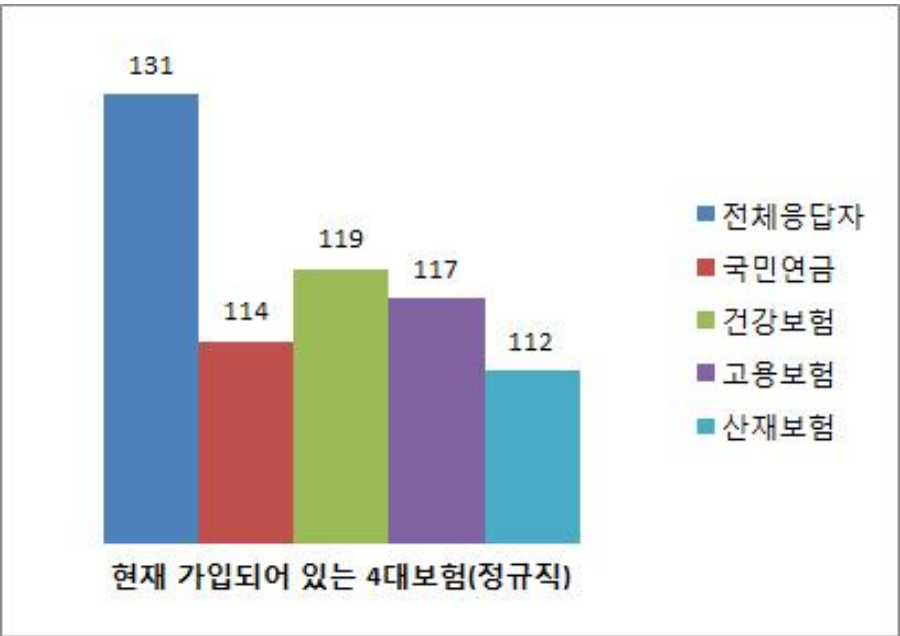


그림 15 4대보험 가입/정규직(전체응답자 131명 중,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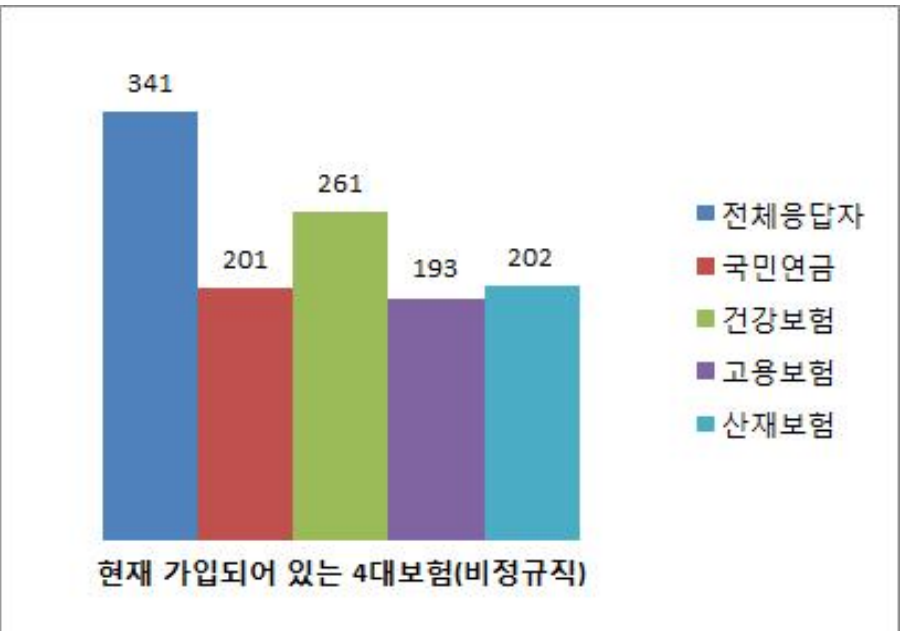


그림 16 4대보험 가입/비정규직(전체응답자 341명 중,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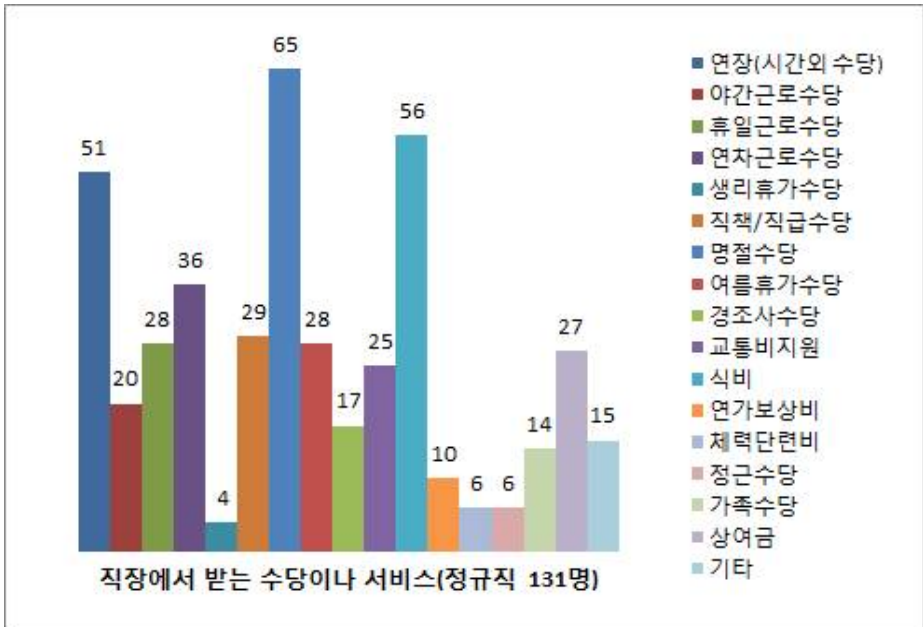


그림 17 직장에서 받는 수당이나 서비스(정규직 131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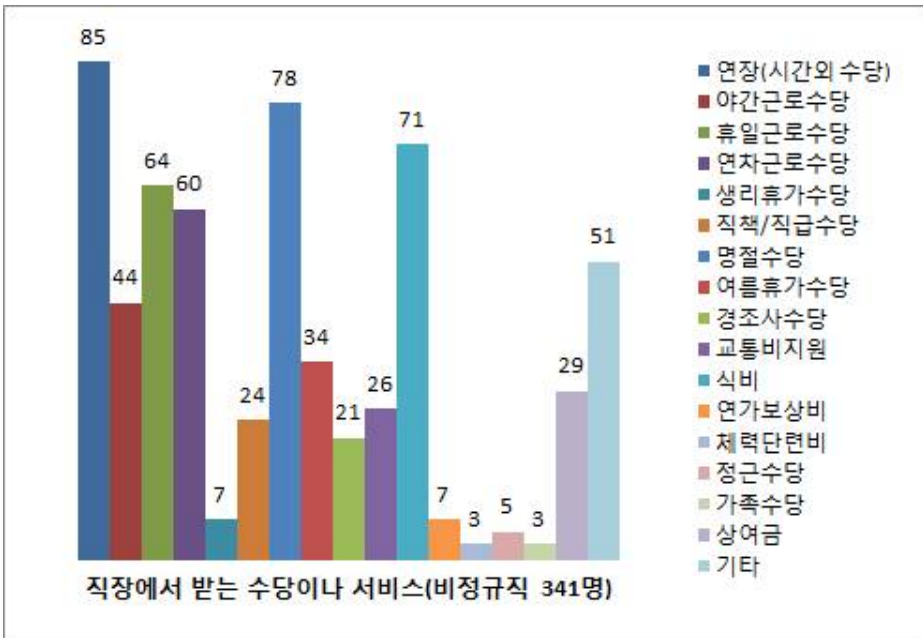


그림 18 직장에서 받는 수당이나 서비스(비정규직 341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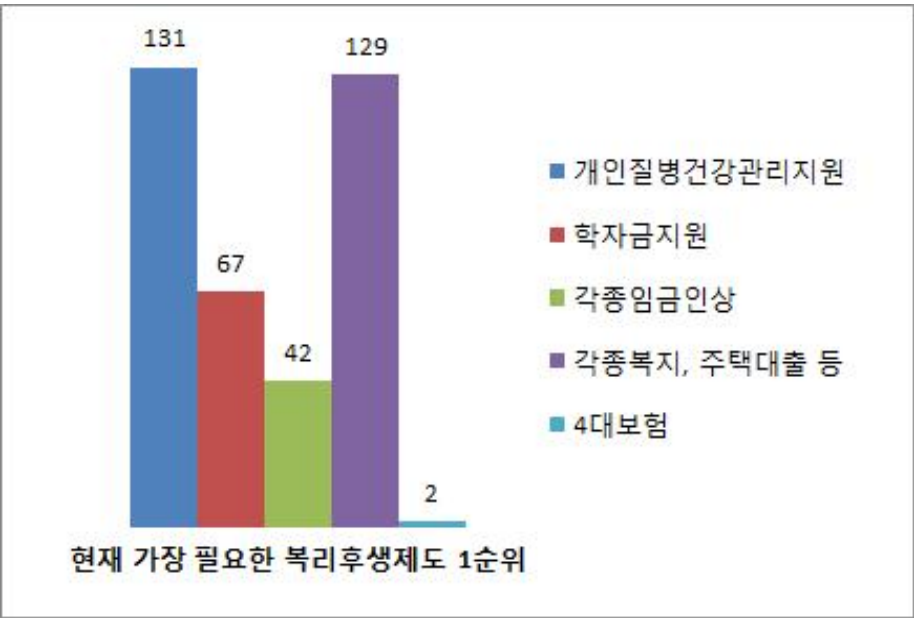


그림 19 현재 가장 필요한 복리후생제도(1순위 선택자 상위 5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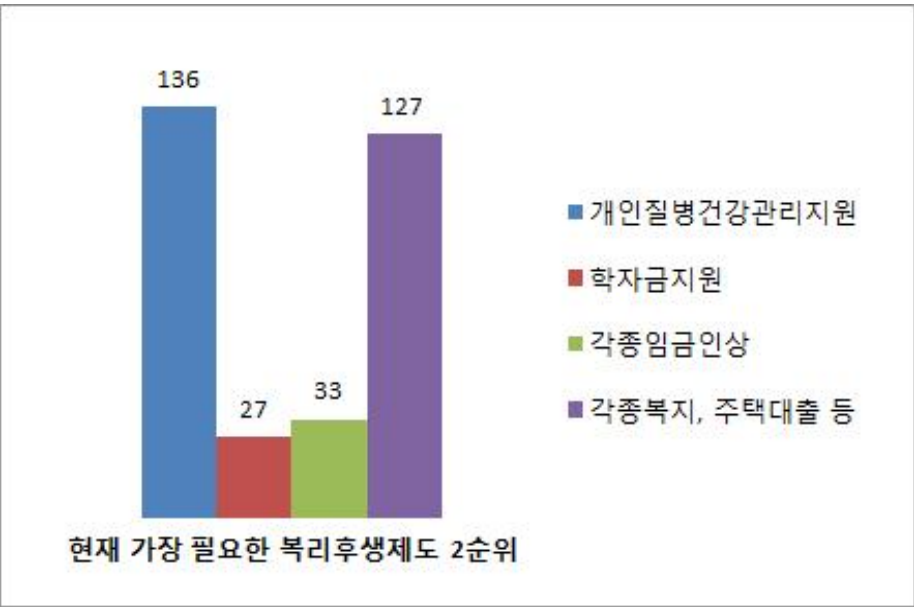


그림 20 현재 가장 필요한 복리후생제도(2순위 선택자 상위 4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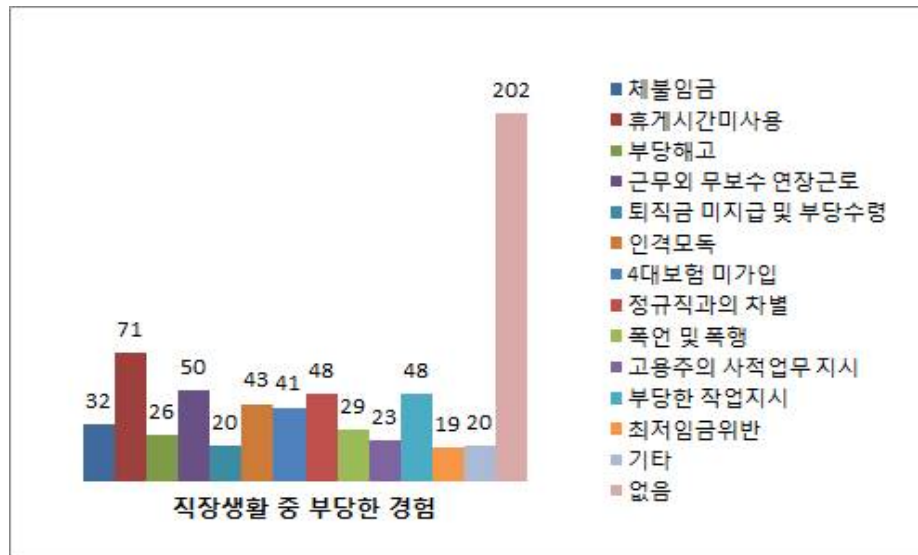


그림 21 직장생활 중 부당한 경험(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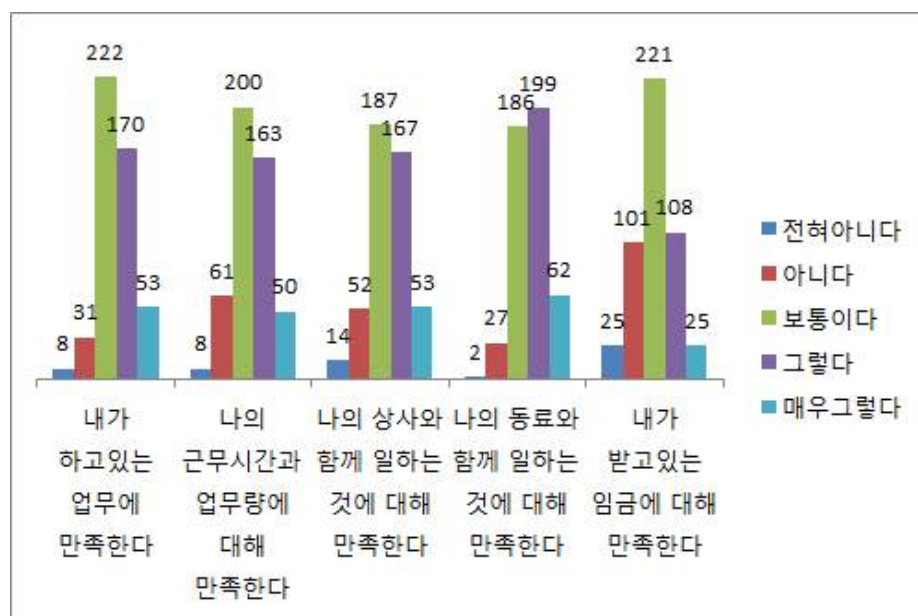


그림 22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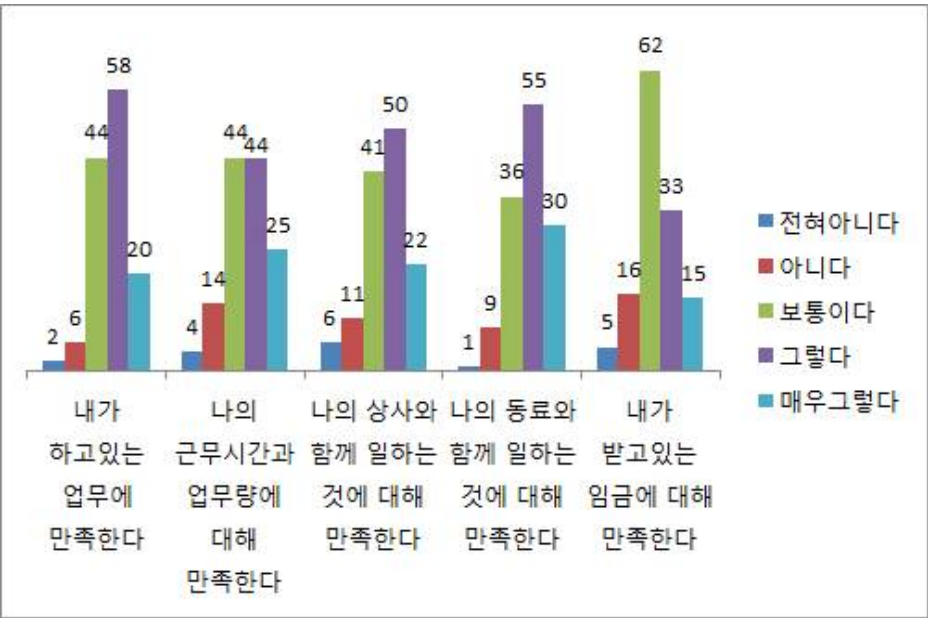


그림 23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정규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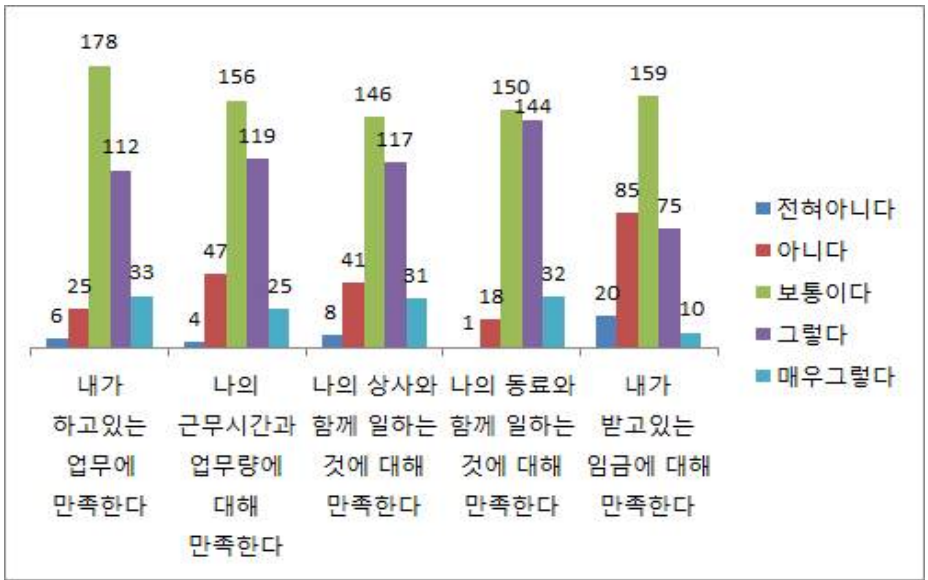


그림 24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비정규직, 단위 명)

□ 자녀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질문 응답

- 응답자들의 연령이 높다보니, 자녀들 대부분이 성인이 경우가 많았음.
-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 학원등을 이용하고 있었음.
- 사교육비용은 158명 응답자들의 경우 87.7만원 지출하고 있어, 꽤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음.
- 자녀돌봄 서비스중 필요한 서비스는 저렴한 학습지원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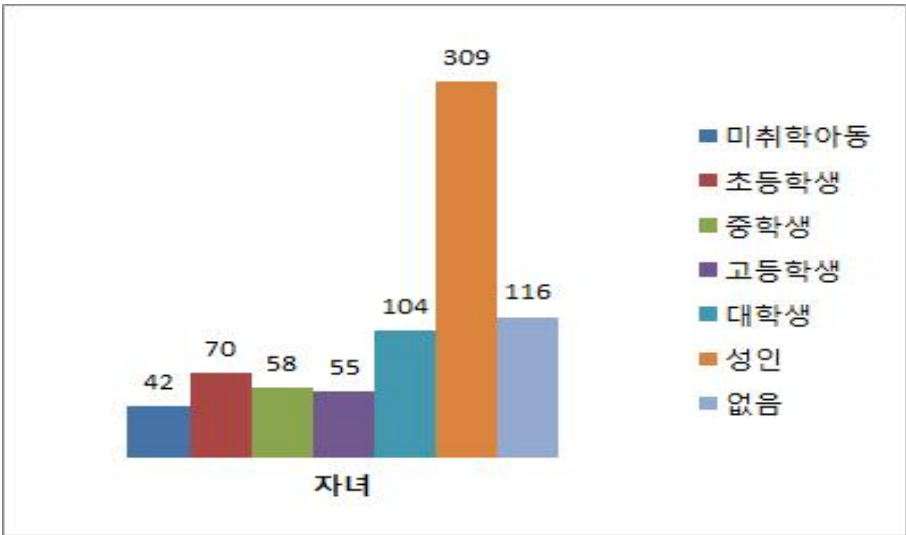


그림 25 응답자의 자녀 현황(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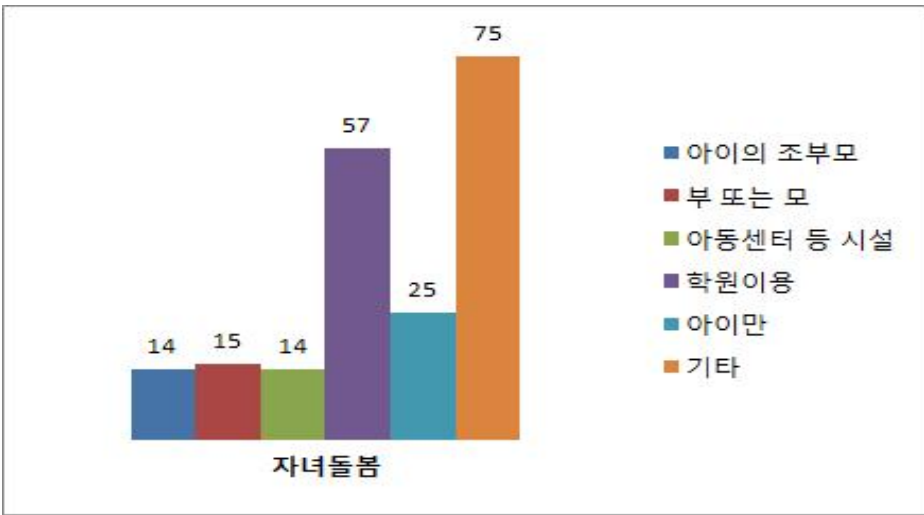


그림 26 응답자들의 자녀돌봄(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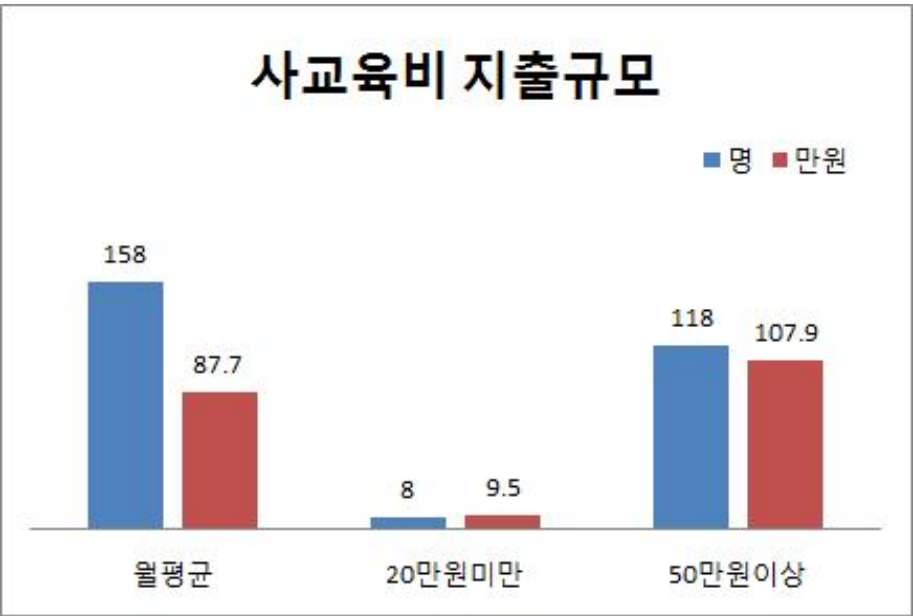


그림 27 자녀 사교육비 지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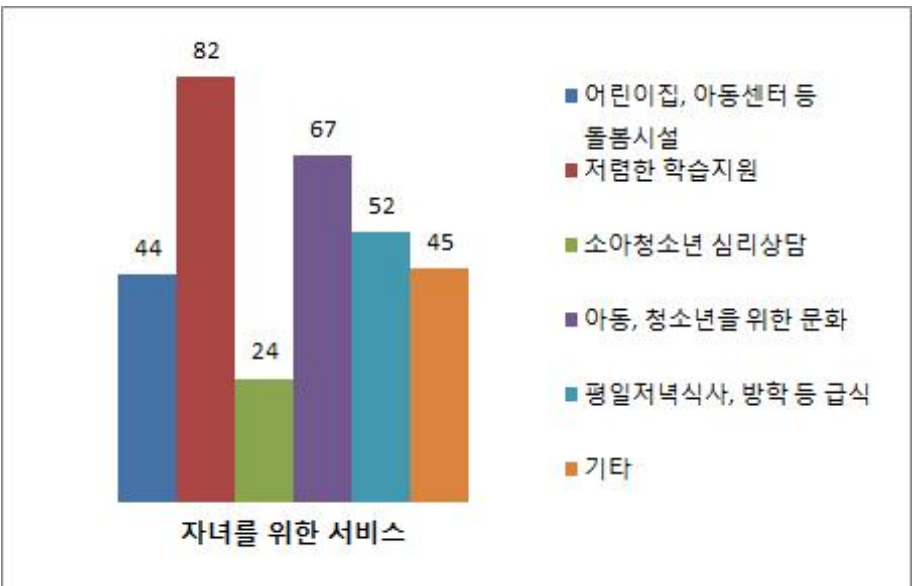


그림 28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단위 명)



## □ 생활욕구에 대한 질문 응답

- 필요한 생활지원서비스로 많은 맞벌이 부부가 가정관리대행과 주택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서울의 경우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한 가정관리대행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전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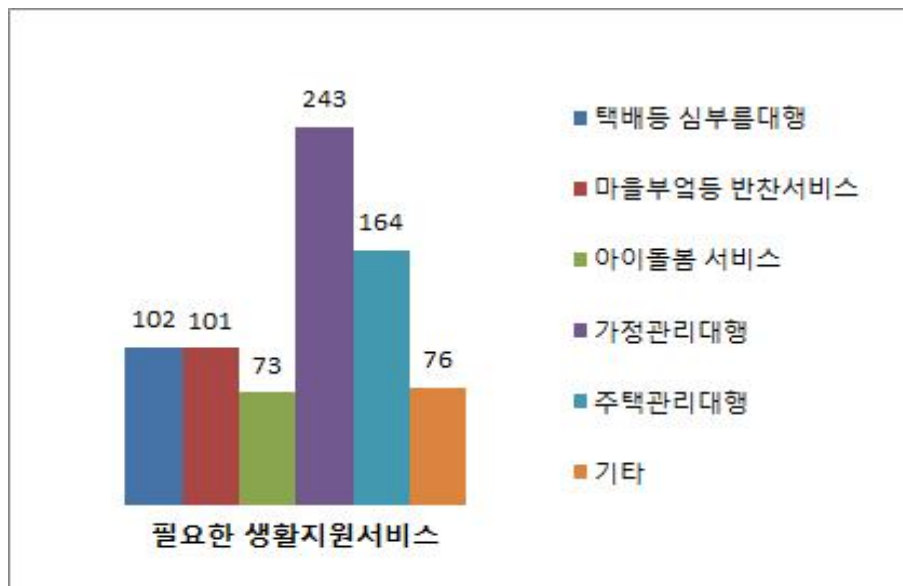


그림 29 필요한 생활지원서비스(단위 명)

## □ 건강과 여가생활에 대한 질문 응답

-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다보니, 가정의 의료비지출 규모가 꽤 높았음.
- 민간 의료 보험비 지출규모는 응답자 453명중 평균 43.9만원이 지출되고 있어, 이 또한 규모가 높음.
- 월 평균 개인별 지출규모의 경우 식비 등이 높게 나왔고, 통신비 규모도 높게 나옴.
- 여가활동의 경우, 운동, 산행, 여가활동 순이며, 특별히 없는 노동자들도 꽤 높게 나타남.
- 자립적 삶을 위한 지역시스템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높은 관심과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동, 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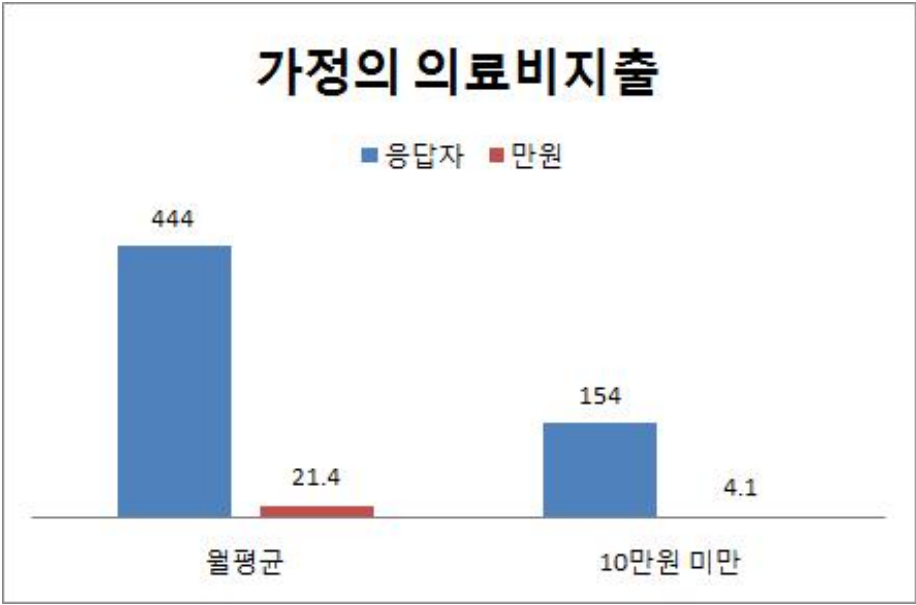


그림 30 가정의 한달 의료비 지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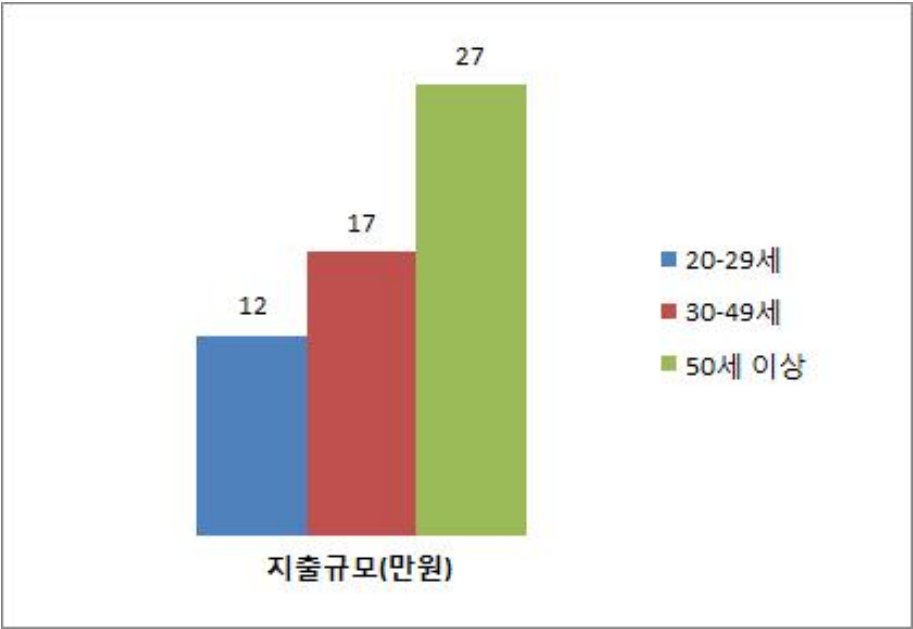


그림 31 연령대별 한달 의료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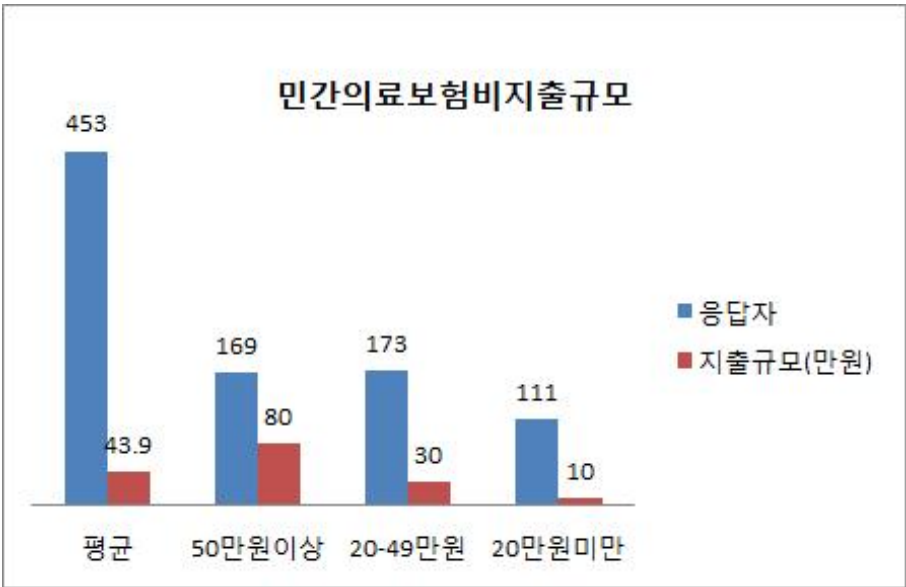


그림 32 한달 민간보험 지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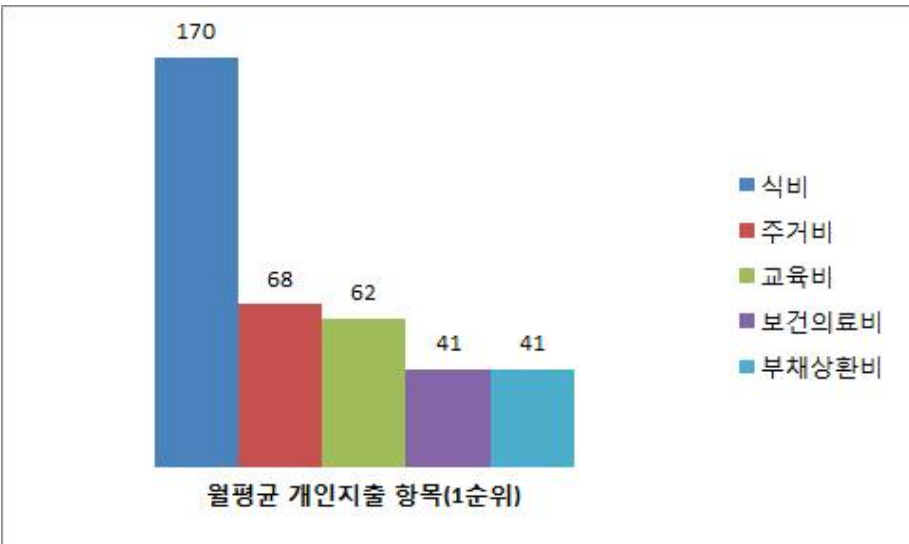


그림 33 월평균 개인지출 항목 중 가장 큰 것(1순위 선택자 상위5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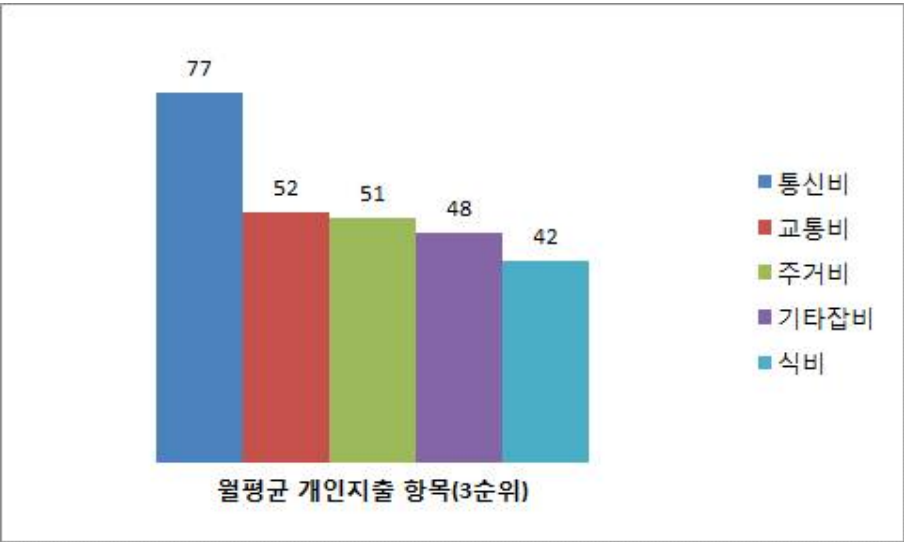


그림 34 월평균 개인지출 항목 중 가장 큰 것(3순위 선택자 상위5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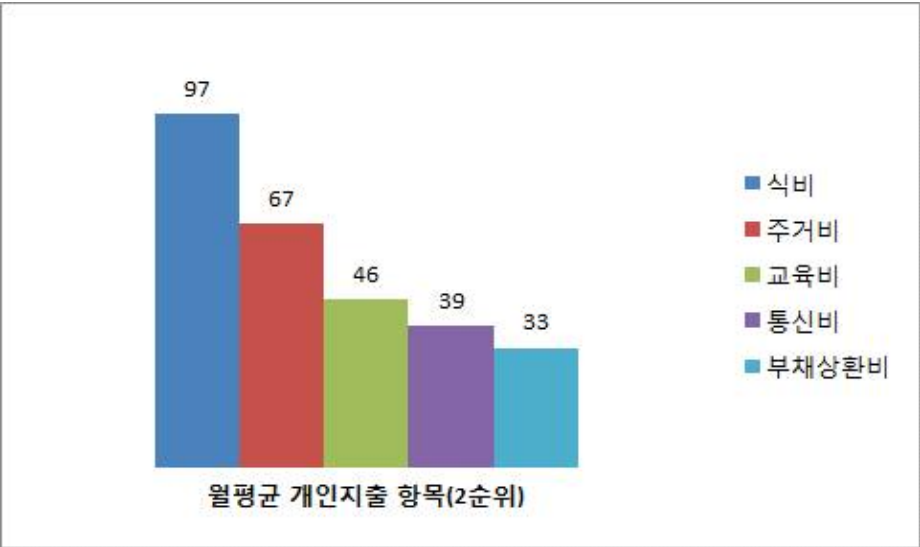


그림 35 월평균 개인지출 항목 중 가장 큰 것(2순위 선택자 상위5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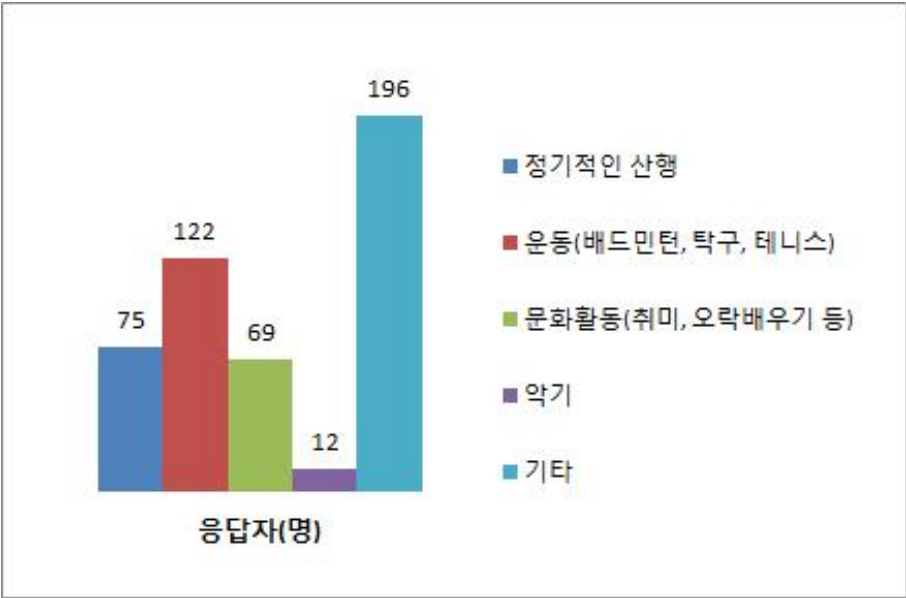


그림 36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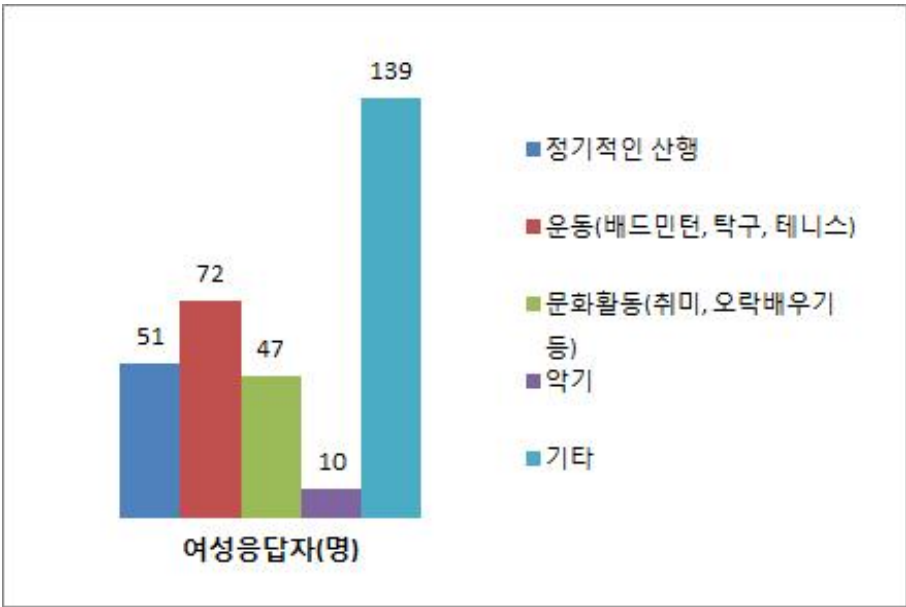


그림 37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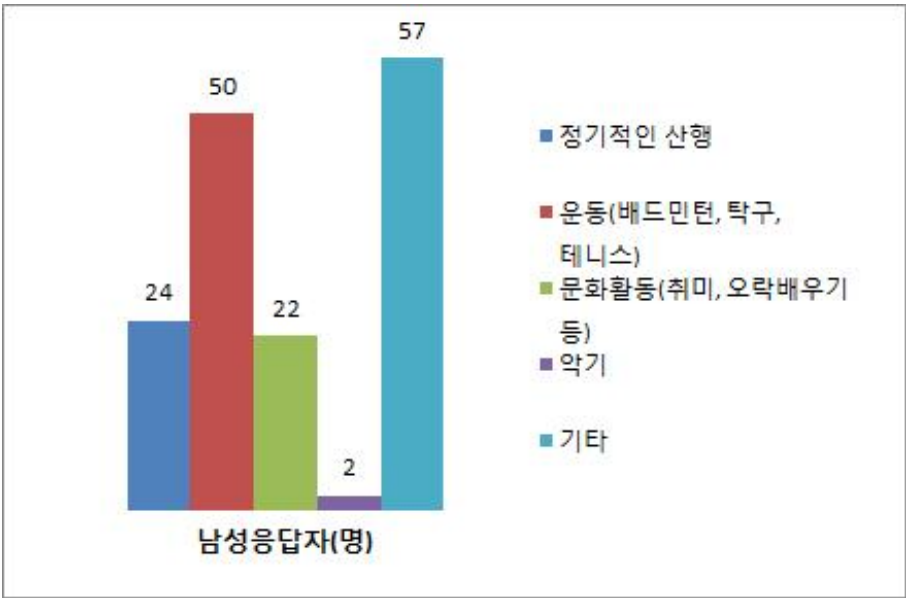


그림 38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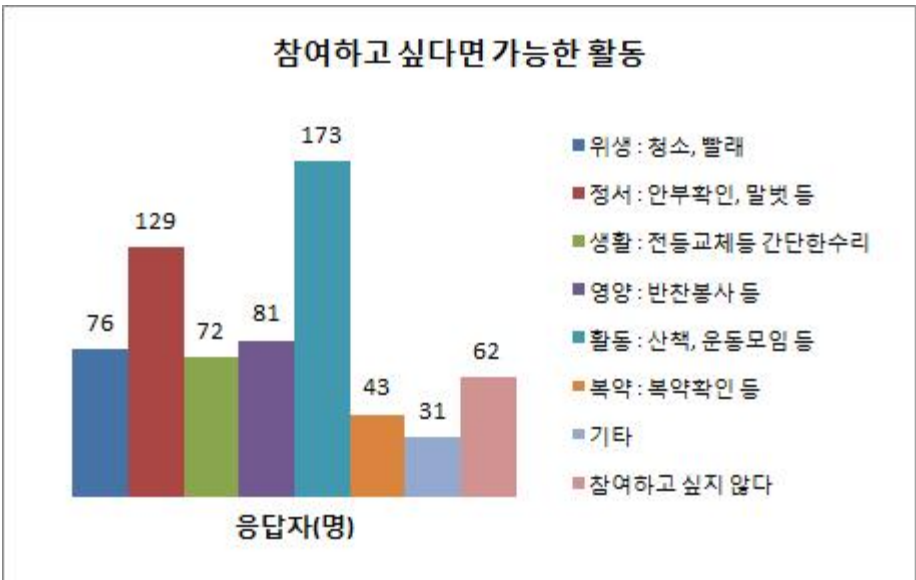


그림 39 참여 가능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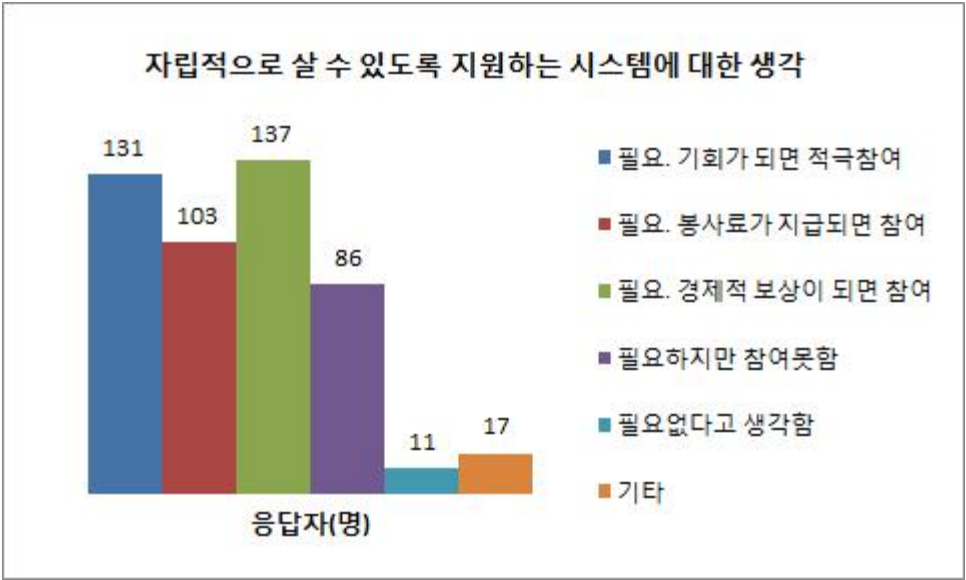


그림 40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욕구



□ 기타에 대한 질문 응답

- 필요한 교육과 관련한 응답에 많은 노동자들이 문화취미 강좌를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응답자의 연령대와 성별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보임. 다음으로 재취업훈련교육과 역량 강화강좌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다만 정규직은 역량강화 강좌 요구가 높게 나옴. 성별 요구는 남성은 재취업훈련, 여성은 문화취미강좌가 높게 나옴.
- 대전광역시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할 일과 관련하여 많은 응답자들이 일자리소개, 취업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센터, 직업훈련, 생활임금적용범위확대, 여가활동지원 등이 대체로 비슷하고 요구되어지고 있음.
- 현장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먼저 사용자 인식 개선과 다음으로 노동자인식개선, 근로기준법 강력단속,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미조직노동자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74% 정도 나타나고 있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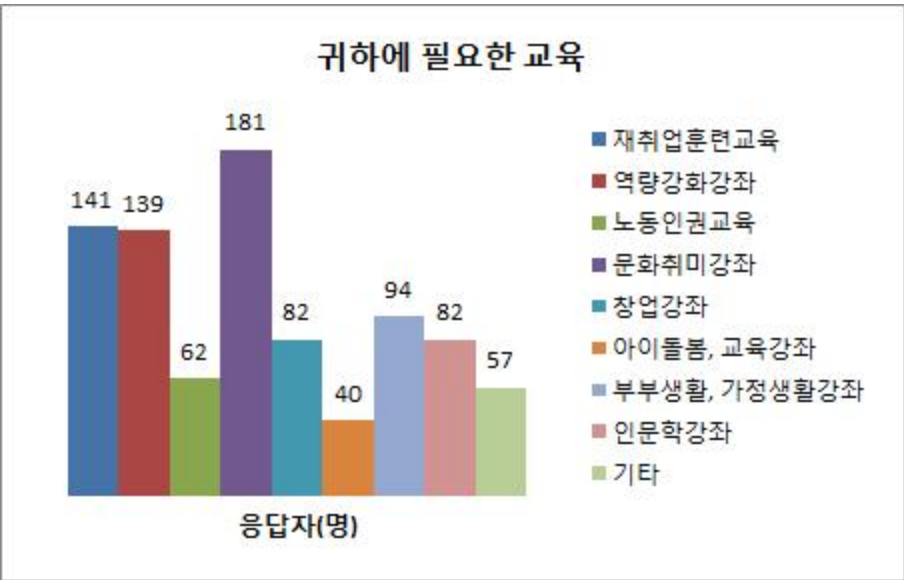


그림 41 현재 필요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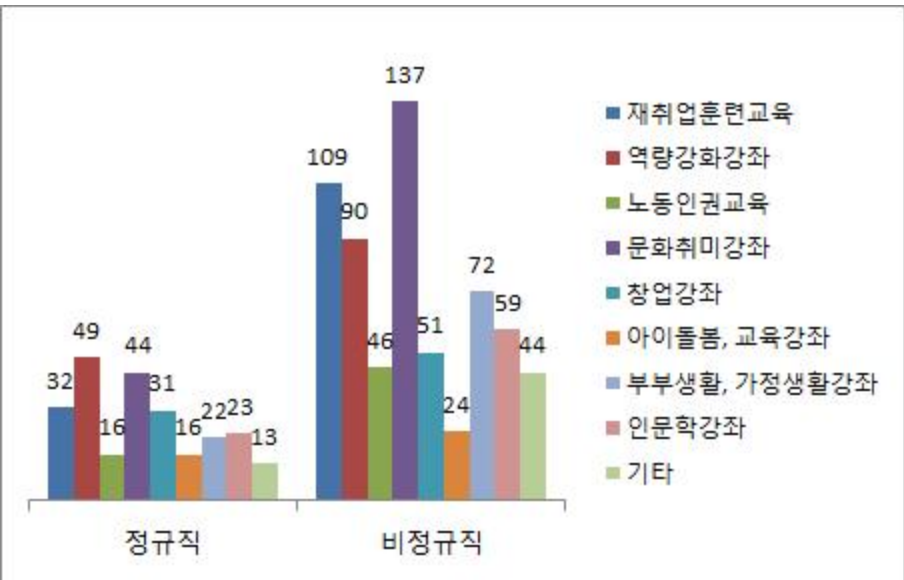


그림 42 필요한 교육(정규직, 비정규직 분류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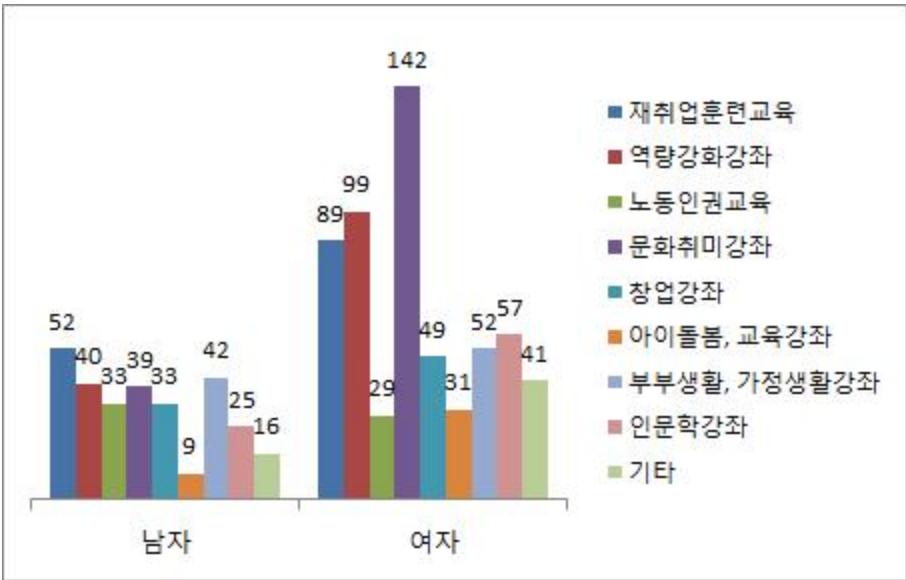


그림 43 필요한 교육(남, 여 분류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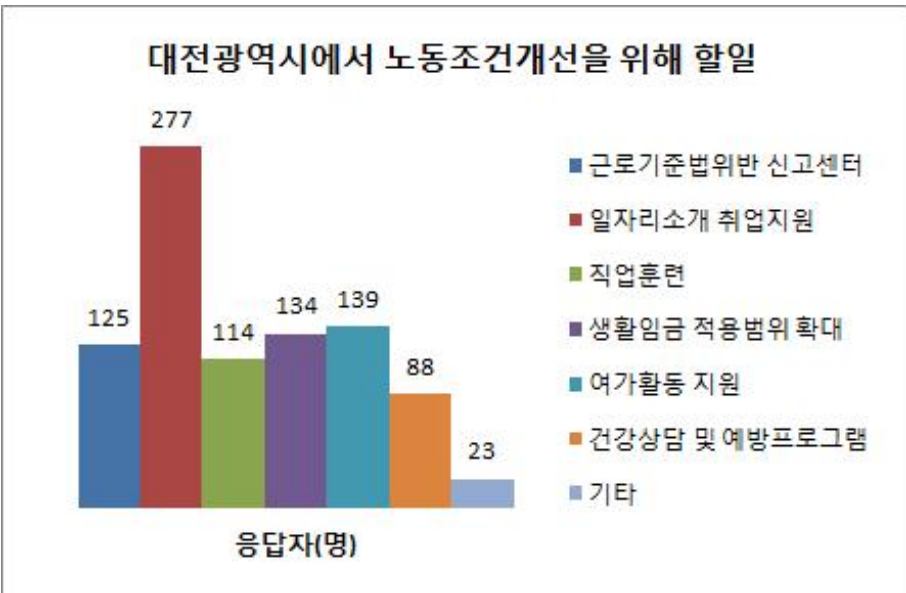


그림 44 대전광역시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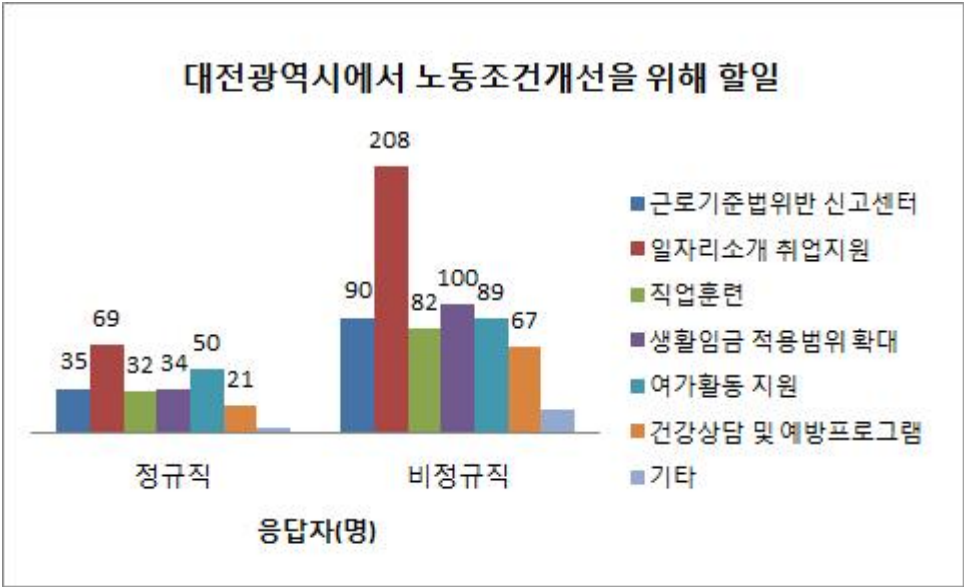


그림 45 대전광역시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정규직,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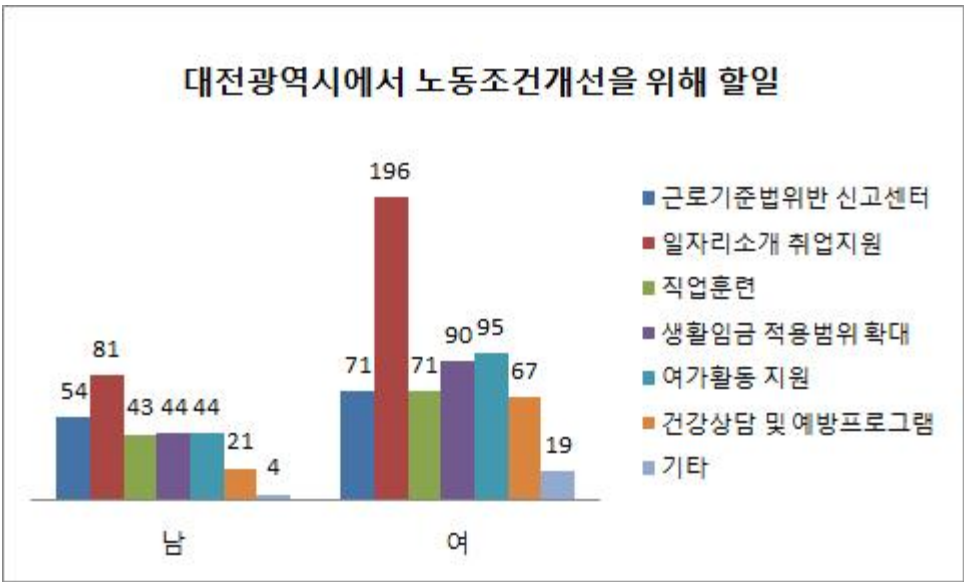


그림 46 대전광역시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남,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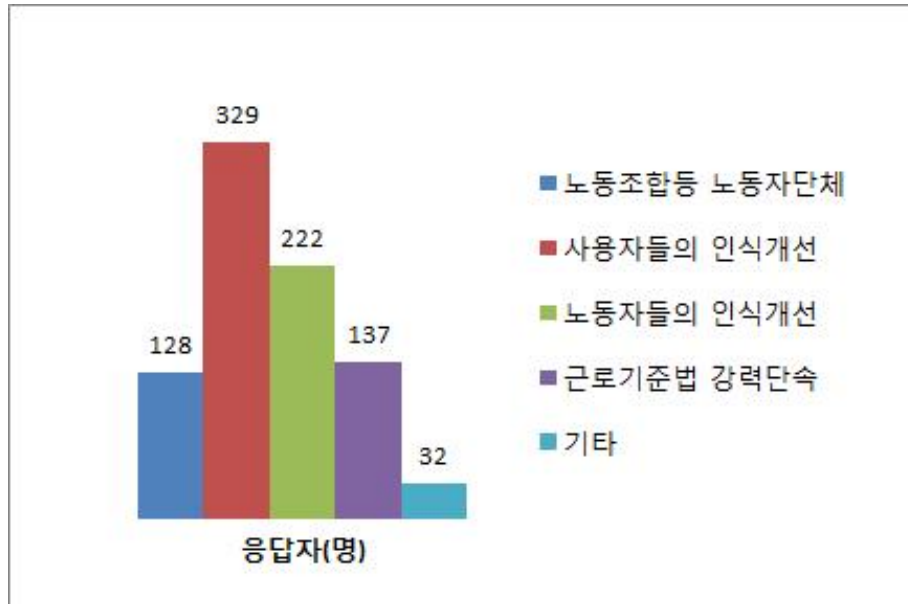


그림 47 노동현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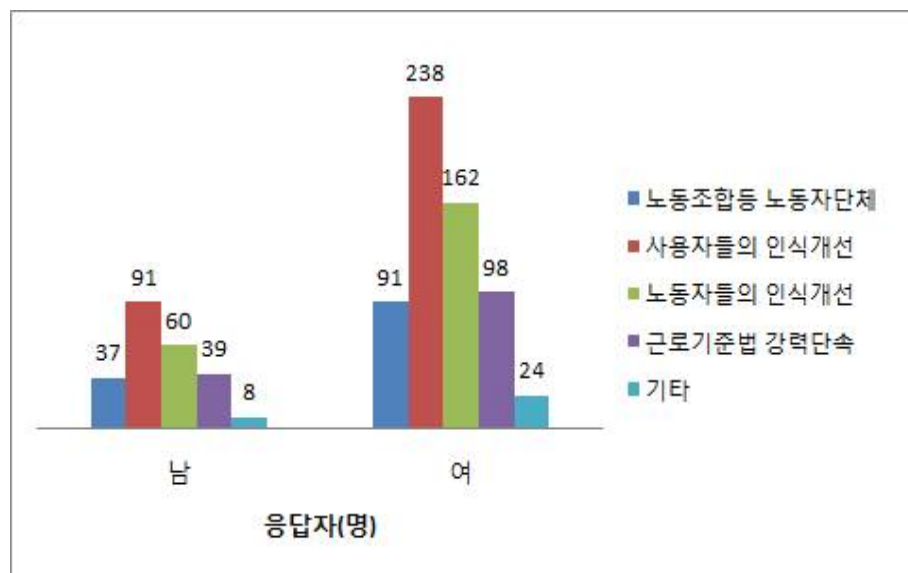


그림 48 노동현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남,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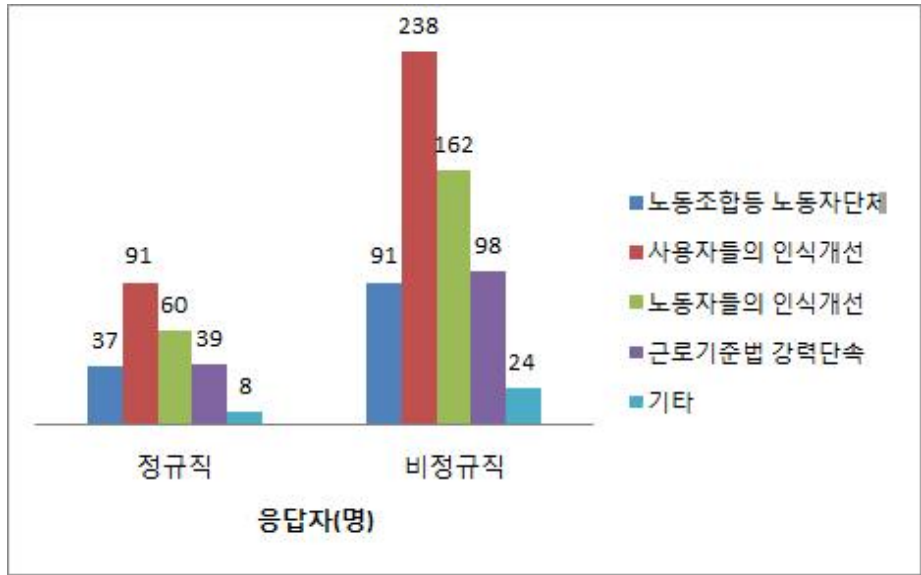


그림 49 노동현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정규직,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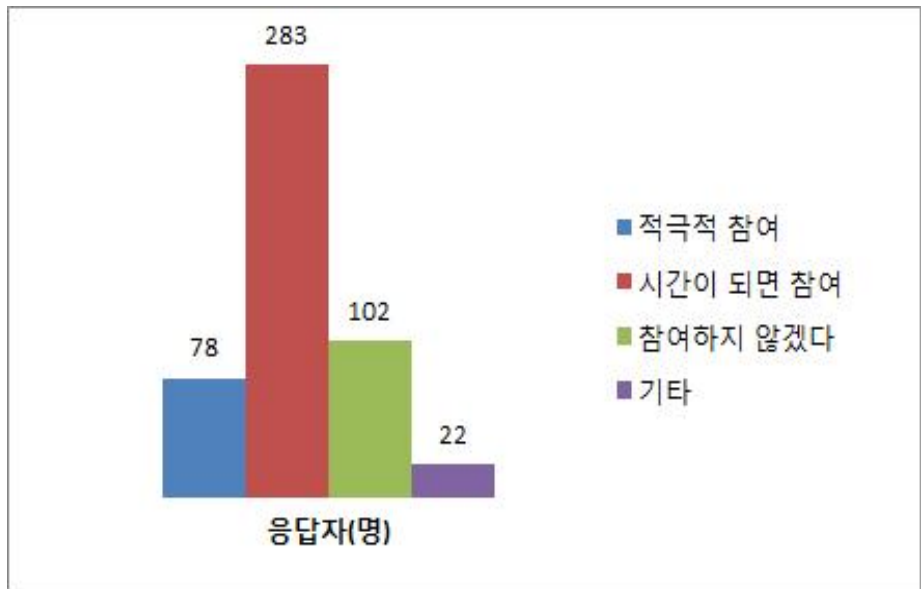


그림 50 노동자 네트워크 참여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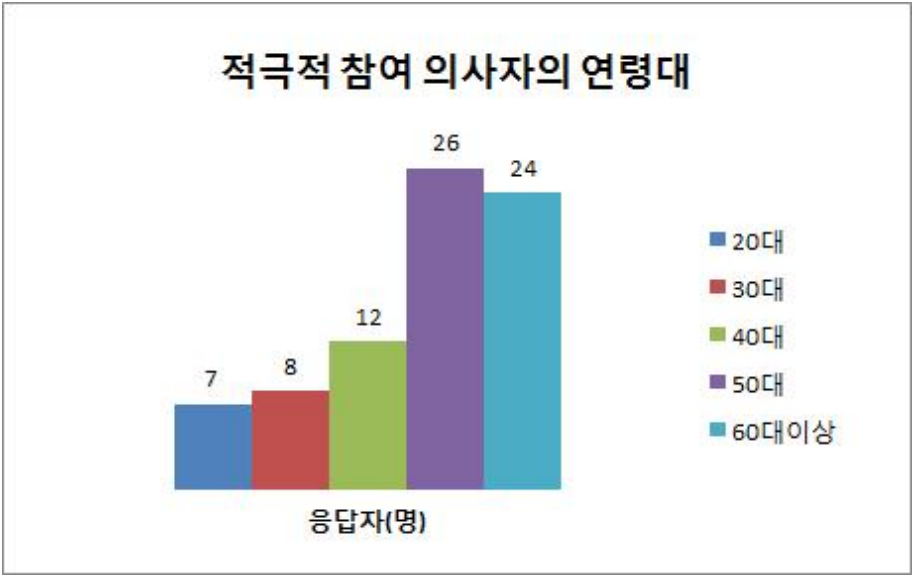


그림 51 적극적 참여 의사의 연령대별 분류

### Ⅲ. 응답자 지역별 간담회 결과

#### ○ 지역별 간담회 진행

간담회 진행

총 6곳에서 진행함. 총인원 110명 참석

간담회 진행 순서

- 인사 소개
- 실태조사 보고 및 질의응답
- 모둠별 이야기 나눔
  - 부당한사례발표
  - 대전시, 유성구청에 제안하고 싶은 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한 사업
  - 미조직노동자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제안

#### ○ 참석자 현황

날짜	지역	장소	참석자
8월 26일	온천1	주민자치센터	25
8월 27일	온천2	주민자치센터	20
8월 29일	신성동	커피 1011	18
9월 3일	노은	주민자치센터	23
9월 4일	진잠	주민자치센터	13
9월 5일	원신흥동	아임1미터	11



### 간담회 참석자들의 부당한 사례 모음

어린이집, 유치원파견 영어강사 (매년 바뀔 수 있는 교재등을 본인이 준비)/ 근무시간이 12시간 30분 너무 힘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을 주지 않음/ 근무시간 추가수당과 휴게시간이 지켜지질 않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유로 1년이상 근무했으나 퇴직금 못 받음/ 혼자 근무하여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이 없음/ 최저시급을 주지 않음/ 주민갑질사례-경비노동자 겨울에 장갑착용했다고 주민들 민원제기/ 주민갑질사례-청소노동자 이동시 양산쓰는 것을 민원제기함/ 관리원복 개선/ 아파트 청소노동자 고용불안, 주민갑질/ 여름휴가 준다니면서 연차에서 제외함/ 언어폭력/ 장애인활동보조인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없는데, 근로시간만 연장시킴/ 휴게시설이 없음/ 여러가게 사장님이 바쁠 때, 다른가게 알바생을 부름/ 임금을 두달씩 체불해서 줌/ 바쁠 때 연장근로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음/ 근무외 사적인 일을 시킴/ 부당하고 당함/ 정해진 근로 외에 다른일을 시킴/ 선임자의 갑질, 사사건건 면박을 줌/ 3년동안 임금인상이 없음/ 입사때 이야기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킴/ 아이가 아파 빠졌는데, 부당하고/ 알바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사람을 못 구한다고 일을 더 시킴/ 약속된 시간안에 일이 끝나면 가라고 하고, 임금을 깎음/ 연차수당을 사용할 수 없음/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음/ 4대보험 가입해 준다고 하고 1년뒤에 해 줌/ 영양사에게 조리사 일을 시킴/ 임금변경시, 담당업무변경시 사전 설명없이 일방적 통보/ 성차별적 언행/ 학력에 대한 차별/ 휴게시간에 자꾸 일을 시킴/ 주 5일근무인데, 토요일 일해도 급여주지 않음/ 일용직 노동자로 야근을 해도 수당을 주지 않음/ 노동절날. 정규직은 쉬고, 기간제만 근무시킴/ 커피타는 업무는 당연히 여직원에게 시킴/ 알바시간을 지켜주지않고, 손님없으면 가라하고 급여주지 않음/ 편의점 알바 야간수당을 못 받음/ 아침에 출근했는데, 필요없다고 가라함. 수당없음/ 성희롱- 엉덩이 만지고, 속옷봄 등등/ 재가복지센터 업무상 이동시 점심식대, 이동 주유비 개인부담시킴/ 자연스럽게 하루 2-30분 초과근로시킴, 수당없음/ 괴롭혀서 그만두게 함/ 식당일함. 수술 때문에 그만두어야 하는데, 실업수당 못 받음/ 방문판매자들 개인사업자라고 개인 물품까지 다 구입하게 하고, 재계약시 수수료 인하를 개인들에게 책임 전가함. 방문코디에게 판매강요하며 주류, 식대 미지급함

### 대전시, 유성구에 제안하고 싶은 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한 사업

법제도 정비해서, 부당행위에 대한 지자체에서 제재필요/ 일자리 조례, 부당노동행위 감시조례 필요/ 노동자 쉼터 만들어 줬으면/ 일자리 정보를 공공기관에서 통합 관리해 줬으면/ 일정기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 공공기관 단

기계약을 안 했으면/ 경력자만 뽑지말고, 신입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으면/ 기간제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해 1박 2일 여행권을 주었으면/ 특수고용노동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았으면/ 나라의 지원혜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야간 법률상담을 해 줬으면/ 노동자 네트워크를 지원해 줬으면/ 취업, 직업훈련등 홍보 많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취업소개/ 일자리소개, 창출/ 생활임금을 더 올렸으면/ 휴게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일자리 창출하는 자격증이나 생산적인 교육등이 있었으면/ 새로운 일자리 교육을 해줬으면/ 노동권익센터 등에서 캠페인을 많이 해줬으면/ 아이돌보미를 해 줬으면/ 위캔센터처럼 유성구도 노동자들을 위한 센터가 있었으면/ 고용자와 노동자간 일자리 연결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영세노동자들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유성구에도 여성인력개발지원이 있었으면/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있었으면/ 근로자들의 근로상태 점검을 수시로 해줬으면/ 나라의 지원금을 개별적으로 하지말고, 개인에게 직접/ 맞벌이 부부 자녀 양육을 위한 대책이 있었으면/ 노동 상담을 해 줬으면/ 출퇴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노동자권리에 대한 교육/ 방과후 아이들 돌봄과 저녁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노은, 반석)/ 동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해 줬으면/ 유성지역상담 신고센터가 있었으면/ 맞벌이를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문화공연, 스포츠등 입장권이나 할인권을 제공해 줬으면/ 캠핑장등을 연결해 장비대여 및 할인/

### **미조직노동자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제안**

영세사업장의 부당한 일드를 말할 수 있는 환경조성/ 사업장의 변화를 위해 고발/ 노동자들간의 부당함을 서로 나누고, 노동법규에 대한 교육과 정보공유/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었으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성화했으면/ 용역이 바뀌어도 제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협회/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해 주었으면/ 안전한 근무환경 만들기/ 일자리창출, 임금협상에 참여/ 아이돌봄 역할/ 가정생활강좌 등 다양한 강좌를 해 주었으면/ 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음/ 다양한 교육/ 사업장의 업무개선, 임금협상등 대변/ 모여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필요/ 사업주와 노동자 인식개선사업/ 정보공유와 방향제시를 해줬으면

## IV. 정책대안

### 1. 실태조사 분석

#### □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 전체 응답자 484명중 여성 응답자 비율이 69%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 연령별 특징에서 2-30대 비율이 23%이고 40대, 50대, 60대 이상이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음.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응답자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응답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28%)에 비해 비정규직이 높게 조사되었고,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중 단시간노동자들을 조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고연령층 조사비율이 높다보니, 단시간 노동 비율도 높게 나왔음.
- 응답자들의 근무직종에 대해서는 서비스 직군이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 사무실 등 사무직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경비 및 시설관리, 요식업 순으로 종사하고 있음.

#### □ 근로환경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48%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각종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4대보험에 미가입된 노동자들이 정규직은 20여명, 비정규직은 100여명으로 조사되어, 영세사업장 노동환경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음.
- 각종수당과 관련하여서도 정규직은 명절수당 정도를 50%정도 받고 계셨고, 식비의 경우 50% 못 미치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비정규직은 20%정도만 식비 등 수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요구되는 수당과 관련하여는 개인질병건강관리지원 및 여타의 복지수당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왔음.
- 직장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정규직은 임금을 제외한 부분에서 대체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비정규직은 대부분 만족도가 높지 않게 나왔음.
- 직장생활중 부당한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경험없음도 많지만, 부당한 경험을 가진 노동자들은 2-3개의 부당한 사례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음.

□ 자녀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질문 응답

- 응답자들의 연령이 높다보니, 자녀들 대부분이 성인이 경우가 많았음.
-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 학원등을 이용하고 있었음.
- 사교육비용은 158명 응답자들의 경우 87.7만원 지출하고 있어, 꽤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음.
- 자녀돌봄 서비스중 필요한 서비스는 저렴한 학습지원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음.

□ 생활욕구에 대한 질문 응답

- 필요한 생활지원서비스로 많은 맞벌이 부부가 가정관리대행과 주택관리 대행 업무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서울의 경우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한 가정관리대행 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어, 대전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함.

□ 건강과 여가생활에 대한 질문 응답

-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다보니, 가정의 의료비지출 규모가 꽤 높았음.
- 민간의료보험비지출규모는 응답자 453명중 평균 43.9만원이 지출되고 있어, 이또한 규모가 높음.
- 월평균 개인별 지출규모의 경우 식비등이 높게 나왔고, 통신비 규모도 높게 나옴.
- 여가활동의 경우, 운동, 산행, 여가활동 순이며, 특별히 없는 노동자들도 꽤 높게 나타남.
- 자립적 삶을 위한 지역시스템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높은 관심과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동, 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옴.

□ 기타에 대한 질문 응답

- 필요한 교육과 관련한 응답에 많은 노동자들이 문화취미강좌를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응답자의 연령대와 성별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보임. 다음으로 재취업훈련교육과 역량강화강좌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다만 정규직은 역량강화강좌 요구가 높게 나옴. 성별 요구는 남성은 재취업훈련, 여성은 문화취미강좌가 높게 나옴.
- 대전광역시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할 일로는 많은 응답자들이 일자리 소개 취업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센터, 직업훈련,

생활임금적용범위확대, 여가활동지원등이 대체로 비슷하고 요구되어지고 있음.

- 현장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먼저 사용자 인식개선과 다음으로 노동자인식개선, 근로기준법 강력단속,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미조직노동자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74% 정도 나타나고 있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2. 정책대안

### ① 부당노동 사례의 근절을 위한 대안

#### ○ 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위반 등 체불 임금에 관련된 부당행위들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의사불벌제가 악용되고 있다. 즉 임금체불을 해도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밝히면 형사처벌을 면해 주는 것으로, 사용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대표적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을 좀 더 강화하여 최저임금, 임금 체불등의 경우는 발생시점부터 지급시점까지 과태료를 징수 한다던가, '제재를 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제재한다'라고 개정만 하여도 현재 부당노동행위는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 ○ 감시. 단속 기능의 강화를 통한 방안

2016년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은 1300여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2018년부터 인력충원을 하여 3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겠다고 밝히고는 있다. 노동청도 워낙 근로감독관들이 모자라도 보니, 밀려오는 사건을 처리하기도 바쁜 상황이어서, 예방활동이라던가, 감시.단속 업무는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작년 올해 많은 수의 감독관들이 늘었다고 하니, 이제는 감시. 단속업무를 강화 시켜줘야 한다. 현재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적 감시. 단속 업무로는 부당노동행위 근절로 나아갈

수 없다. 사후 관리가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활동도 중요하고, 감시·단속 업무 강화를 통해 현장 지도를 확대시켜야 한다. 상시적인 현장지도를 진행해 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면담 등 직접 당사자를 통한 근로기준법 준수 지도 업무를 확대 시켜야 한다.

#### ○ 예방교육과 법률 지원을 통한 방안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지원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줄어 나간다면, 전반적인 노동여건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다.

### ㉔ 사용자, 노동자 인식 개선을 위한 대안

#### ○ 사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인식개선이 첫 번째 과제로 뽑혔다. 아직도 소규모사업장들의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러다 보니, 노무관리가 변화된 노동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취업규칙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 한 곳도 있고, 노동법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따라서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입문과정에서 ‘노동법 교육’등을 필수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노무담당자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한다. 오랫동안 굳어진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달라진 노동법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 모범 사업주에 대한 표창과 여러 가지 혜택들도 고민해 봐야 한다. 법인세 감면에 대한 부분 등 모범사업주들에 대한 사례 발굴과 홍보를 통해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 ○ 노동자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사용자들의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의 노동권 보호도 필요하다. 많은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해도 그것이 부당한 것인지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노무관리가 당연히 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절망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자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교육,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율은 8-10% 사이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내려가면 2-3% 노동조합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 노동자로 갈수록 노동조합 가입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증진은 더 어려운 것이다.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등이 나서 줘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 ③ 자치단체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안

#### ○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토대, 노동정책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노동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정책 마련을 위한 토대로 조례가 제정 되어야 한다.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권익보호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받아, 지방정부의 기본노동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 노동자들이 홀대 받던 시대는 벗어나야한다. 많은 지방정부에서 친노동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노동자적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노동행정 서비스로는 열악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못하는 지방정부의 찾아가는 노동행정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 ○ 노동전담 부서 설치를 통한 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단위인 담당부서가 지방정부내 설치되어야 한다. 대덕구의 경우 일자리지원 부서를 노사상생계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익증진 조례제정과 위원회 설치를 통해 노동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은 노사 지원체계에서 노동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역할로 확대되어야 한다.

○ 모범 사업주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문재인 정부들어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며, 우선의 과제중 하나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하였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나갔다. 대전광역시도 산하기관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를 추진 완료한 상태이다. 하지만 기초지방정부는 추진실적이 미비한 상황이다. 대전지역 기초지방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생활임금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생활임금은 대전시, 유성구, 서구, 대덕구가 조례제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생활임금은 대전시 9,600원, 유성구 8,760원, 서구 8,960원, 대덕구 8,850원이다. 2018년 전국 생활임금 평균이 8,777원인데, 2019년 기초지방정부 생활임금이 전년도 평균정도 유지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낮은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유도해 줘야 한다.

○ 주기적인 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한 노동환경개선

지역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직종별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 노동청,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 나서야,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500여명의 실태조사로는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확인 정도 진행한 것이어서, 기초지방정부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직종별 개선방안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로드맵 과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종합적인 노동복지센터 필요

현재 서울시는 23개 전 자치구에 2021년까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의 경우 ‘대전시노동권익센터’

조례에 [ 3조(센터의 설치)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북구와 동구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기초지방정부에 없지만, 광역단위로 비정규직센터, 노동상담소,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들이



노동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올해 대덕구에서 노무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노동법률상담을 10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다른 기초지방정부는 계획이 없다. 대전시도 기초지방정부 노동행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초지방정부도 관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로 단순히 노동법률상담 지원 서비스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실태조사에서도 보여지듯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법률상담, 노동자 교육사업, 노동관련 정보제공, 취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기능을 갖춘 노동센터가 설치 되어야 한다. 상담과 교육, 정보제공 등 노동권보호와 예방, 더 나아가 취업지원까지 가능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해 주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정부도 나서야 한다. 취업알선 이후 끝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찾고, 유도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당노동행위 이후 사후 대처가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필요하다.

광주시의 경우 노동행정에 적극 나서면서 성과들을 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고 새롭게 공단을 조성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조직화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해대변 조직들을 만들어, 당사자들이 노동권익증진에 나서도록 지방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비노동자 협회를 만들어 지원을 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행정도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 노동센터를 통해, 상담도 받고, 취업도 소개받고, 취업후 노무지원도 받고, 퇴사후 재취업훈련에 대한 정보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쉼터, 노동상담과 교육, 취업소개와 노무관리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노동센터가 필요하다.

#### ○ 미조직 노동자 지원 및 미조직노동단체 육성

광주시의 경우, 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경비노동자 협회등이 만들어 졌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화 지원을 지방정부가 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2-3%의 노동조합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평균 노조 가입율이

10% 안팎인 것에 비하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율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 취약계층 노동자 일수록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당사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마저 없다는 것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권익증진을 도모해 줄 수 있는 통로가 그만큼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저소득 노동자인 미조직노동자들은 자립적으로 이해대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에 조합비로 자립적인 노동조합 운영이 어렵고,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나서줘야 한다. 미조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네트워크(노동단체)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자기 구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④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

##### ○ 다양한 정보 제공과 교육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일수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스스로 정보를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기회를 놓치는 노동자들이 많다. 하지만 기회를 놓친 노동자들이더라도 자신들의 사례를 다른 노동자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다른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법, 일자리, 퇴직자를 위한 정보, 재취업 훈련 정보, 악덕업체 정보, 안심사업장 정보, 부당한 대우의 사례, 복지 등 다양한 요구들이 있다.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노동자 공유공간을 만들어 함께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에 올해 10개의 공유공간들이 만들어 졌는데, 노동자들을 위한 공유공간 조성에도 지방정부에서 나서 주었으면 한다.

##### ○ 이해대변 조직에 대한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 부당한 대우에 대응,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교섭, 노무사를 통한 법률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현장에 대한 감시자 역할 등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이해대변 조직에 바라는 내용들이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장안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대응해 나가기

어렵다보니, 미조직노동자 공동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해대변 조직이 현재 그리 많지 않다. 노동조합의 경우 산별로 가고는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하지만 자생력을 갖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노동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와 노동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시민단체들이 함께 미조직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지원하는 사회적 협약도 필요하다. 미조직노동자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도 함께 만들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생활공제회, 노동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조직들이 있다. 하지만 지역별, 소규모 사업장의 직접 당사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역 노동조합은 많지 않다. 대덕유니온을 비롯하여 이제 몇몇 지역에서 지역 유니온이 고민되고,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커뮤니티 유니온이라는 지역 노동조합이 있다. 78개 지역노조가 연합하여 전국 커뮤니티 유니온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인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고, 실태조사와 노동상담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이다. 청년유니온이 세대별 노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정도이다. 노동조합 가입율이 낮은 상황에서 전통적 노동조합의 틀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지역노조나 업종별 노조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해 낼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의 관심과 지원과 더불어 양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도 역할을 찾아 나서야 한다.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 V. 활동소감

### 1. 조사원 활동 후 소감

#### <방순희>

노동자들이 문제가 많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다. 주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벌이로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예로 많고 직장구하기가 너무 힘든 현실 같아요. 설문으로 끝나지 않고 또 설문 결과가 반영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양인란>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으로 접근하였으나 젊은층은 관심이 없었다. 참여한분들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호소했다. 대부분이 일자리가 없다. 기본생활 의식주의 어려움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들이었다. 안전적, 인간관계의 소속감을 정착하는데 필요한 제공을 하며 자아존중 자아실현까지 이루어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으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일 것 같다.

#### <이형미>

노동권익센터에 대해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노동권리안내서를 읽고 노동권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간담회 참석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간담회에 참석해서 노동권익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다.

#### <김인숙>

노동자들이 제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 각도에서 설문을 응답 받았다. 노동권리 10계명을 정확히 알리고 찾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어 실태조사를 하고 난뒤 뿌듯함을 느꼈고 나 또한 많은 지식을 쌓게 되었다.

#### <정희진>

바쁘게 일하시는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서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힘든 일을 하시면서 자기 본인 보다는 가족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본받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삼용>

긍정적인 사람도 많았지만,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니 권익보호가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김은리>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등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불만등이 표출되고 있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개념이 약하다고 느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원되는 복리후생제도 같은 것이 직원, 계약직 모두 달랐다.

<김성심>

다양한 직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생각이었으나 생각만큼 쉽지는 않더라구요. 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청소, 보험설계사,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쉽게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으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음을 알았구요. 조사 후 본인들에게 불편한 일이 없냐는 질문도 간혹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로겠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유통업 판매직에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시간대비 소득은 너무 적다는게 안타까웠어요. 우리나라에 복지시설과 함께 근로자들의 소득 또한 풍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미현>

설문 조사시 기본인적사항 기재란을 부담감을 갖고며 망설여하셨습니다. 작은 마트, 병원 등은 사장님이나 원장님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설문조사시 눈치가 보였습니다. 근무시간에 설문조사를 받아서 불편해 하고 쉬는 시간이 따로 없어 항상 긴장상태로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을 법적으로 강제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환경이 열악할수록 설문조사에 대한 반감이 컸던 것 같아요.

<김연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생활력있게 현장에서 각자 맡은 바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소형마트와 대형마트 위주로 활동을 했는데 근무중이라 쉬는 시간 짬을 내어 조사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정책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서정숙>

대부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한나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했고, 실제 반영되기를 고대하며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가능한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업무시간인데도 적극 참여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좋지않은 조건으로 이하는 분들이 많았고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지속되어 초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퇴근시간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 활동사진



그림 52 원신흥동 간담회



그림 53 진잠동 간담회



그림 54 노은2동 간담회



그림 55 노은 2동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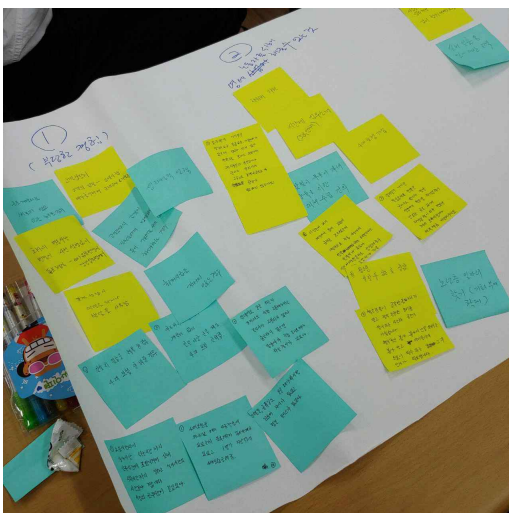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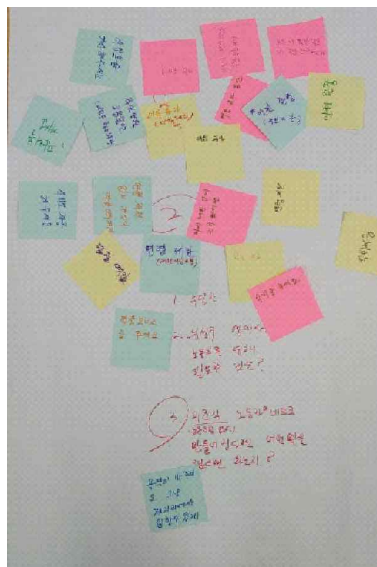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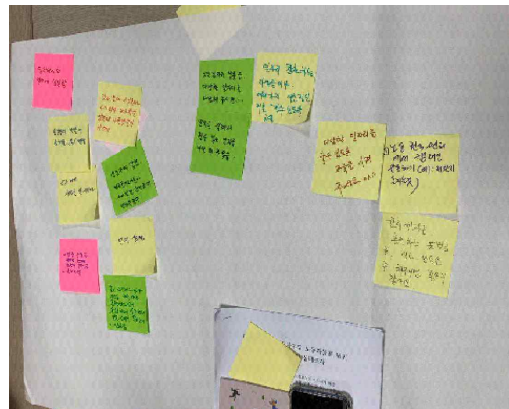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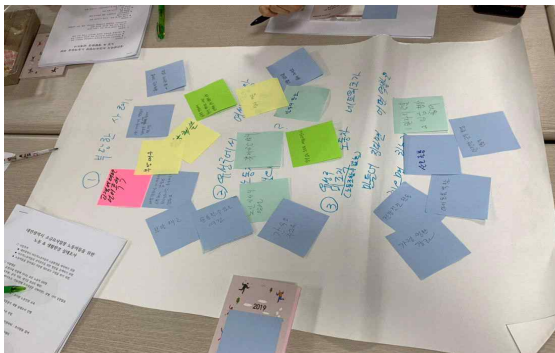
그림 56 온천 1동 간담회



그림 57 온천 2동 간담회



그림 58 신성동 간담회



## 참고자료 1. 실태조사 설문지

### 대전광역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 생활환경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본 실태조사는 대전광역시 영세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및 생활환경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조사의 결과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생활 욕구를 알아보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 대전광역시 영세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마련과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계법 제 8조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소중한 의견을 솔직히 적어주시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2층 042-345-2536

통계를 위한 기본 인적사항입니다.

다음에 해당사항에 V 또는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성별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결혼	<input type="checkbox"/> 했음 <input type="checkbox"/> 안했음
연령	만                  세	가족수	본인포함                  명
근무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이상 ~ 12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 ~ 3년 <input type="checkbox"/> 3년이상 ~ 5년 <input type="checkbox"/> 5년이상~		
근무시간	1일          시간          (주          시간)		
임 금	시급                  원 (월급                  원) (4대보험 포함)		
고용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일용직 <input type="checkbox"/> 파견·용역 <input type="checkbox"/> 단시간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근무직종	(                  ) (콜센터, 생산직, 식당, 개인사무실, 병원 등)		
노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주택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임대아파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가구의 월평균 소득	총                  만원 (가족의 소득을 모두 포함)		
가계부채	총                  만원 (가구 전체의 부채)		





학생 ( )명            ☐ 대학생 ( )명  
☐ 성인 ( )명            ☐ 없음

8. 귀하의 미성년 자녀는 주로 누가 돌보니까?

- ☐ 아이의 조부모      ☐ 직장 다니지 않는 부 또는 모  
☐ 아동센터 등 시설   ☐ 학원이용      ☐ 아이만 있음      ☐ 기타

9. 귀하의 가정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평균 \_\_\_\_\_만원

10. 귀하에게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V표 해주세요.

- ☐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 돌봄 시설 지원  
☐ 저렴한 학습지원 서비스  
☐ 소아청소년 심리상담 서비스  
☐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 서비스  
☐ 평일저녁식사, 방학 등 급식 서비스  
☐ 기타

▶ 생활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 서비스가 있다면 다음 중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이용하실 의사가 있는 것 두 가지를 V표 해주세요.

- ☐ 택배 등 심부름 대행  
☐ 마을부역을 통한 반찬 서비스 등 (공유부역, 파티, 잔치 대여)  
☐ 아이돌봄 서비스 (병원방문, 저녁 돌봄 등)  
☐ 가정관리 대행 (청소, 세탁, 설거지, 반찬 만들기 등)  
☐ 주택관리 대행 (간단한 수리, 도배, 인테리어 등 )  
☐ 기타

▶ 건강과 여가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귀하 가정의 의료비 지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_\_\_\_\_만원

13. 귀하 가정의 민간보험료 지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보험, 실비, 암보험 등)

월 \_\_\_\_\_ 만원

14. 귀하의 월평균 개인지출 항목중 큰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식비 (외식등)	문화.취미	주류.담배 기호식품	교육비 (학원등)	주거비	보건의료 비	통신비
의복비 (의류)	헌금 및 기부금	이.미용비	쇼핑	부채 상환비	교통비	기타잡비

15.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두 고르세요.

- ☐ 정기적인 산행 등                      ☐ 운동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  
☐ 문화활동 (취미.오락배우기 등)                      ☐ 악기                      ☐ 기타

16.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연령, 소득, 능력 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Aging In Place)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웃을 돌보는 다양한 참여가 필요한데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필요하다.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 필요하다. 약간의 봉사료들이 지급된다면 참여하고 싶다.  
☐ 필요하다. 경제적 보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 필요하지만 참여하고 싶지 않다.  
☐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 기타 (                      )

16-1.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아래의 활동 중 참여 가능한 활동을 선택해주세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위생: 청소, 빨래 등  
☐ 정서: 안부확인, 말벗 등  
☐ 생활: 전등교체 등 간단한 수리



- ☐ 영양: 반찬봉사 등
- ☐ 활동: 산책, 운동모임 등
- ☐ 복약: 복약확인 등
- ☐ 기타:
- ☐ 참여하고 싶지 않다.

▶ 기타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다음 중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 두 가지를 V표 해주세요.

- ☐ 재취업훈련교육
- ☐ 역량강화 강좌 (파워포인트, 엑셀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
- ☐ 노동인권교육 - 직장내 피해사례 대처를 위한 교육
- ☐ 문화, 취미 강좌 (악기, 뜨개질 등)
- ☐ 창업 강좌
- ☐ 아이 돌봄, 교육 강좌
- ☐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위한 강좌
- ☐ 영혼의 치유제 인문학 강좌
- ☐ 기타

18. 대전광역시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V표 해주세요.

- ☐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 ☐ 일자리 소개 및 취업지원
- ☐ 직업훈련
- ☐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 ☐ 여가활동 지원
- ☐ 근골격계, 감정노동 등 건강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 ☐ 기타 ( )

19. 현재 노동현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V표 해주세요.

- ☐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단체
- ☐ 사용자들의 인식개선
- ☐ 노동자들의 인식개선
- ☐ 근로기준법에 대한 강력한 단속

☐ 기타 ( )

20. 같은 직종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후 노동조건 개선과 생활 협동조합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간담회, 원탁회의 등)

☐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

☐ 시간이 되면 참여 하겠다

☐ 참여하지 않겠다

☐ 기타 ( )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료노동법률상담**  
**1566-2569**